
보행환경평가지원사업 국외출장보고서_03

뉴욕의 보행환경 개선과 장소만들기 사례

2012. 11.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목적	1
2. 출장인원	1
3. 출장기간	1
4. 출장지역	1
5. 출장일정	2
6. 특기사항	3
II.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사례조사	4
1. Green Light for Midtown, Broadway	4
2. High Line	28
III. PPS 장소만들기 워크숍	41
1. 교육과정 개요	41
2. 강연내용 요약	43
3. 사례지 답사	72
4. 장소 평가 실습	88
IV. 출장성과 요약	92
1.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사례 연구 관련	92
2. 장소만들기 교육 관련	93

I. 출장개요

1. 출장목적

-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보고서 사례조사를 위한 답사 및 연구자료 수집
 - 보행환경 개선 우수사례지 답사: High Line, Midtown Broadway 일대
 - 물리적 환경개선 현황, 설계기법상의 특성, 이용 및 운영실태 조사
- Placemaking: Making It Happen(PPS Training Workshop) 참가
 - PPS(Project for Public Spaces)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공공간을 만드는 ‘장소 중심의 관리 및 실행 전략’을 다룸
 - 전문가 강의, 현장답사, 토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체험형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방법론을 습득
 -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수행 중인 보행환경 평가, 행태, 사례 및 정책 연구와 국내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점점을 모색

2. 출장인원

- 건축도시연구본부 소속 연구원 2인
 - 남궁지희 연구원, 이소민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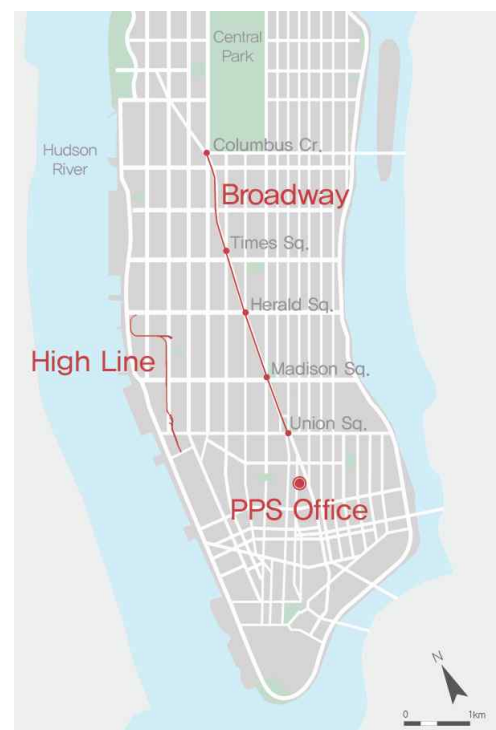
3. 출장기간

- 2012.11.5.(월)~11.12.(월), 총 6박 8일

4. 출장지역

- 미국 뉴욕 맨하탄 미드타운 일대
 - High Line(제1구간, 제2구간)
 - Broadway(Columbus Cr. - Union Sq.구간)
 - Project for Public Spaces(419 Lafayette St.)

답사지 및 방문기관 위치



5. 출장일정

일자	구분		현지시간	내용
11.5(월)	출국		19:30 19:10	인천 - 뉴욕JFK, KE085편 (소요시간 13시간 40분, 시차 -14시간)
11.6(화)	답사 1-1		10:00	Broadway 남쪽 구간 Herald Square - Union Square
	답사 2		13:00	High Line 제1구간(시점 - 20th St.) High Line 제2구간(20th St. - 30th St.)
11.7(수)	PPS Work -shop	Day 1	13:30	등록, 환영사 및 참가자 자기소개, 목표 및 관심분야
			15:00	장소만들기의 과정과 도구 / Kathy Madden
			16:00	Break
			16:30	장소만들기를 활용한 커뮤니티 미래전략 / Fred Kent
			17:30	Reception + Gallery Walk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자유발표 및 토론
11.8(목)		Day 2	08:30	Breakfast
			09:00	원칙에서 실천으로: 공공공간의 실행과 관리 / Norman Mintz
			10:30	Break
			11:00	장소의 건축: 설계과정 뒤집어보기 / Alan Hantman
			12:00	Lunch
			13:30	사례지 답사(Walking Tour): 브라이언트 파크, 록펠러 플라자, 헤럴드 스퀘어 / K.Madden, N.Mintz & A. Hantman
			16:30	Reception
11.9(금)		Day 3	08:30	Breakfast
			09:00	도시공간을 바꾸는 가볍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 / Eldon Scott
			10:30	장소 평가 실습 : Astor Place / 조별 토론 및 발표
			12:30	Lunch
			13:30	성공적인 시장(market)을 만드는 비결 / Kelly Verel
			15:00	Break
			15:30	공공공간 관리: 제한된 자원과 제약 속에서 일하기 / Andy Manshel
			17:00	최종 정리 및 토론
11.10(토)	답사 1-2		10:00	Broadway 북쪽 구간 Columbus Circle - Herald Square, Madison Square(Green Market)
11.11(일)	귀국	12:20	뉴욕JFK - 인천, KE082편 (소요시간 14시간 15분, 시차 +14시간)	
11.12(월)		16:35		

6. 특기사항 (일정 변경내역 및 사유)

○ 브로드웨이 답사 일정 조정

- 원래 계획에는 하이라인을 화요일, 브로드웨이는 토요일에 답사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웨이 답사구간의 총 길이가 5.5km이고 총 5개의 결절점이 포함되어 있어 하루 만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았음
- 특히 출장기간으로부터 일주일 전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맨하튼 남부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었음
- 언론 보도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만으로는 각 답사지의 실시간 복구상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현장 여건을 미리 파악하고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체류기간 중에 제2, 제3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 귀국 전일에는 돌발 사항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과, 전 구간 답사에 따르는 시간적, 체력적 부담을 덜기 위해 숙소가 위치한 헤럴드스퀘어를 중심으로 브로드웨이 답사 구간을 둘로 나누어, 남쪽 구간의 답사를 화요일 오전으로 앞당겨 수행하였음

○ PPS 답사 일정 변경

- PPS에서 사전 배포한 일정표에는 Times Square의 답사에 Times Square Alliance의 Ellen Goldstein이 직접 동행하기로 되어 있어 사례연구 관련 질문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답사 일정변경으로 인해 만날 수 없었고 대신 이메일 주소를 받음
- 향후 이메일을 통해 계획/사업시행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면 질의하거나, 사업시행 전-후 자료 및 이미지 등을 요청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유니온스퀘어 그린마켓 관련

- 유니온 스퀘어는 주 4회(월, 수, 금, 토) 그린마켓이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며, 주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또한 기존의 공간이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음
- 평상시와 마켓 개장시의 이용현황을 비교, 관찰하고자 하였으나, 화요일 오전 방문 당시 전기, 상하수도, 주유 등 응급재해복구차량을 위한 집결지로 사용되고 있었음
- PPS에서 강연한 Eldon Scott에 따르면, Christmas Market의 특별 개장을 앞두고 11월 9일 금요일 시설공사가 시작되어 1주일 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기간 동안 그린마켓은 매디슨 스퀘어 파크로 임시 이전함
- 토요일에 매디슨 스퀘어 파크를 방문하여 그린마켓 개최 및 이용 현황을 관찰
- 유니온 스퀘어의 이용 현황과 관련된 내용은 PPS가 보유한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사진을 구하였으며, 출처/Credit 표기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는 허락을 받았음

Ⅱ.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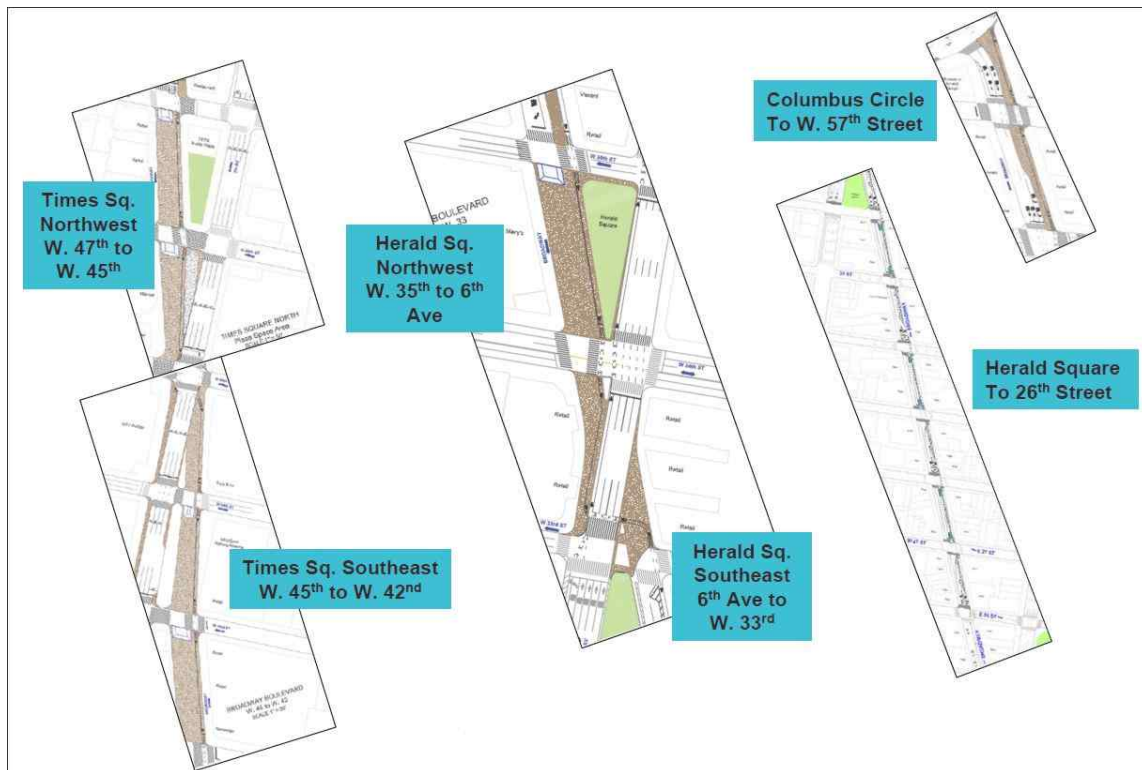
1. Green Light for Midtown, Broadway

- 일시: 11/6 (화) 10:00~12:00, 11/10 (토) 10:00~17:00
- 장소: 뉴욕 맨하튼 미드타운 지역 브로드웨이 일대 보행환경 개선 구간
(Columbus Cr. - Times Sq. - Herald Sq. - Madison Sq. - Union Sq.)
- 답사목적
 - 설계기법 상의 특성을 고찰하여 사례연구 심화·보완
 - 도로단면구성의 변화, 보행공간의 구획과 경계, 횡단경로와 시설, 포장, 식재, 가로시설물 등 물리적 현황 조사(세부내용 확인 및 사진 촬영)
 - 가로변 입면, 업종, 용도, 보차통행량, 이용자활동·행태, 유지관리·운영실태 조사

1) 대상지 개요

- 그린라이트 포 미드타운(Green Light for Midtown, 이하 GLM)은 직교 가로망체계로 이루어진 뉴욕 맨하튼 지역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브로드웨이(Broadway)를 따라 시행된 일련의 교통체계 개선 및 보행공간 조성사업의 명칭임
- 타임스 스퀘어와 헤럴드 스퀘어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6갈래의 도로가 예각으로 만나는 지점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과 체증, 잦은 교통사고로 악명 높았음
- 타임스 스퀘어 주변의 5블록과 헤럴드 스퀘어 주변 2블록의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여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예각교차로 인한 혼잡과 위험을 크게 줄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음
- 총 2.5 acre(약 10,117m²) 규모의 공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뉴욕의 도심에 대 표하는 명소에 어울리는, 여유롭고 활기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남
- 초기에는 교통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도 심했지만, 해당 구간의 교통흐름을 인접 우회노선으로 통폐합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상충과 저항이 줄어들었으며, 결과적으로 맨 하튼 전역의 교통체계와 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음
- 실질적인 개선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동차가 범람, 군림하던 도심부에서 사람을 우선 시하는 공간 배분과 이용으로 극적인 전환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큼

2) 계획 내용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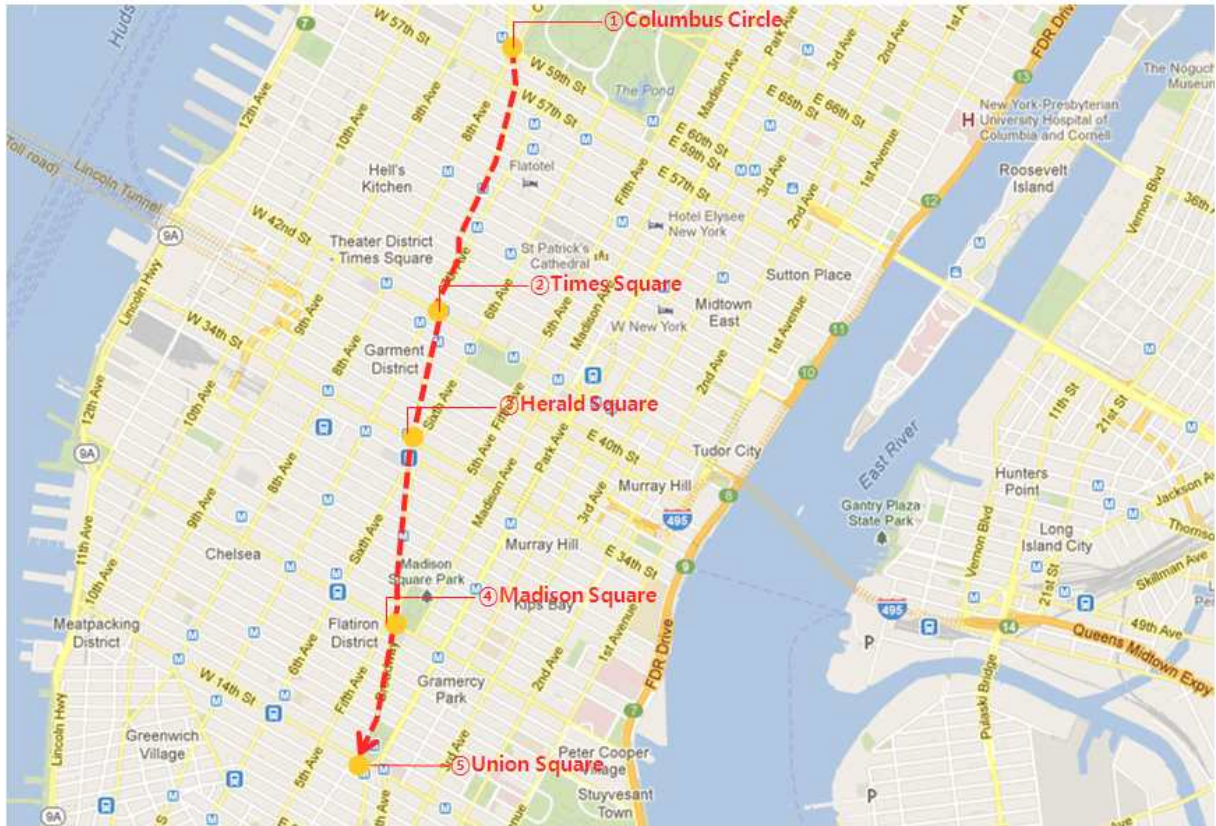
GLM의 주요 계획내용을 나타내는 도면: 갈색 표시는 도로에서 보행자공간으로 전환된 부분을 나타낸다.

출처: NYC DOT(2009), Broadway Pilot Program: Improving Traffic Flow & Safety in the Heart of Midtown, p. 14.

- GLM의 계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가로와 물리적 특성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신 가설적인 요소와 기법들을 활용했다는 점임
- 도로의 횡단구성과 이용방식을 바꾸면서도 기존의 포장 뿐 아니라 단차, 배수체계 등을 그대로 두고 표면의 색을 덧입히거나 이동식 화분, 테이블과 의자를 놓는 방식으로 공간적인 성격의 변화를 나타냈음
- 이러한 요소들을 저렴하고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시험적으로 도입했다가 만약 문제점이 나타나면 부분적인 조정이나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공사를 끝내는 방식에 비해 반대 의견을 설득하기에 용이함
- 뉴욕주 교통부에서 근 1년간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개선효과에 비해 당초 우려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무난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한 이후에, 뉴욕시는 두 지점의 보행전용화를 영구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음
- 이후 보행자 위주의 도로공간 구조 개선은 콜럼버스서클, 매디슨스퀘어, 유니온스퀘어 등 다른 결절점과 전체 연결구간으로 확장·실시되었음
- 나머지 구간에서는 타임스 스퀘어나 헤럴드 스퀘어처럼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지는 않고, 차도 폭과 차선수를 줄이고 교차로에서는 통과궤적에 따라 주행공간을 최소화하였음
- 이렇게 확보한 공간은 보행자를 위한 휴식 및 공공공간이자, 가로시설물의 설치나 식재를 위한 공간, 교통 및 주차영역과 자전거도로-보도 사이의 완충공간의 역할을 겸함

3) 답사 내용

- 실제 방문 일정에 따른 답사순서에 관계없이, 브로드웨이의 북쪽부터 남쪽방향으로 Columbus Cr. - Times Sq. - Herald Sq. - Madison Sq. - Union Sq의 순으로 전체 대상 구간을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답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1) Columbus Circle



답사 당일 Columbus Circle의 중심에 위치한 콜럼버스 동상 주변에는 공공예술 작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철제 가설구조물 위로 올라가 콜럼버스와 같은 눈높이에서 내려다보고 주변의 가로망체계나 교통흐름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었다.



철제 구조물 위에서 내려다본
GLM 프로젝트의 시작점,

Columbus Circle에서
Broadway로 진입하는
지점이다.

녹색과 베이지색으로 칠해진
영역은 원래 자동차들이 다니던
공간이었지만 로터리를
돌아나오는 궤적을 반영하여
차선수를 자연스럽게 줄이고,
남는 공간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자전거도로와 도로 사이의
1차선 넓이의 공간에
보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배치하여 완충공간의 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로 양쪽에 늘어선
고층빌딩들이 강한 위요감과
원근감을 형성한다.

이러한 장면은 대도시 뉴욕의
중심가인 맨하튼 지역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가로경관이다.

자칫 무미건조해보일 수 있는
이 공간에 보행자 영역을
조성하면서 가져다놓은 식재와
시설물들,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진 초록색 물방울무늬가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보행자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조형물 등이 배치되어 있다.

노면에 단차가 없는 대신, 보행자영역의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거대한 이동식 화분이 자동차가 보행자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블라드의 역할을 한다.



Broadway와 동서방향의 가로가 교차하는 부분.

보도 뿐 아니라 자전거도로-도로 사이의 완충영역에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의 이용.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횡단보도에 위치해 있는
보행신호기.

보행신호가 얼마 남지 않으면
흰색의 사람 모양이 아니라
(정지, 진입금지를 의미하는)
빨간 손 모양이 깜박거린다.

옆에는 자전거의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표지판이
같이 붙어있다.

(2) Times Square



타임스퀘어의 현란한 전광판들과 넘치는 인파는 뉴욕의 문화적 활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특히 교차로에 예각으로 면한 건물들은 입면 전체가 전광판으로 뒤덮여 독특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한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바닥 부분은 원래 자동차가 지나던 곳이다.

한쪽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당일 할인티켓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브로드웨이를 차단하기 전에는 보도 공간만으로 이정도 인파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도를 이탈하여 차도로 밀려나오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지금은 자동차 없이 보행자들이 도로 전체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지나다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롭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많은 인파의 뒷편으로 자동차가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 7번가이다.

7번가와 교차하던 브로드웨이가 보행전용으로 전환되면서, 타임스퀘어를 통과하는 7번가의 흐름은 오히려 더 빨라졌다.

7번가와 보행자영역의 경계에는 역시 블라드의 역할을 겸하는 화분들이 놓여있다.



동서방향의 가로와 브로드웨이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자동차가 실수로라도 보행공간에 진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전광판 앞의 광장에 설치된 계단식 시설물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객석의 역할을 하지만, 평상시에도 전망 좋은 휴식공간으로 인기가 많다.



이밖에도 가로공간의 주변부 곳곳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음료를 파는 간이상점이 위치해 있다.

브라이언트파크나 헤럴드 스퀘어와 다르게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가 강렬한 붉은색이라 포인트가 된다.

바닥의 마감 재질은 기존의 도로 표면 위에 덧칠한 것이다.

보기에는 다소 어수선하지만, 먼 자체가 평탄하기 때문에 걷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



(3) Herald Square



메이시스 백화점과 Herald Square Park 사이의 공간.

Times Square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자동차가 통과하던 도로를 전면 차단하여 보행전용공간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차도 위에 녹색과 베이지색의 포장재를 덧칠하여 마감하고, 가로시설물들을 놓아 오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었다.





추운 날씨에도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

파라솔과 테이블, 의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무표정한 공간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요소이다.

메이시 백화점의 상표와 비슷한 계열의 빨간색 파라솔에서 산뜻함과 조화로움이 느껴진다.



바닥의 색상이 변하는 경계선을 따라 간이시설물과 식재를 배치함으로써 통행을 위한 공간과 사람들이 머무르며 쉴 수 있는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였다.





공공공간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과 의자.

쓰레기통에는 시설물의
소유주이자 공공공간 관리를
담당하는 34번가 파트너십의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있다.

이런 작은 디테일까지도
유지관리의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된 것이다.



Herald Square Park의 남쪽
출입구 주변에 위치한 간이
Information booth의
모습이다.



Herald Square Park와
34번가와 만나는 교차로에
설치된 안내시설물.

지도와 주변에 위치한 건물,
시설, 상점들의 정보가 나와
있다.

그 옆의 공간은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력거들이
집결, 대기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백화점 앞의 보행자전용가로와 헤럴드 스퀘어 파크의 경계부에는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어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원 울타리를 따라 불규칙한 자연스러운 간격으로 앉아있다.



공원 내부의 모습. 야간에는 폐쇄되지만 주간의 이용은 활발한 편이다.

브라이언트 파크와 같은 종류의 의자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다.



공원 북쪽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카페와 공용 화장실의 모습이다.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관리인들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횡단신호를 건너온 보행자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

공원을 가로질러 양쪽을 연결하는 통행량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길 건너편에서
보행자전용구간을 바라본 모습

동서방향의 가로(Street)는
남북방향의 가로(Avenue)에
비해 폭이 좁고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가 지나지 않을
때 슬쩍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보행에 미치는 단절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완충영역(버퍼존)이 조성된
이후로, 브로드웨이를 따라
길을 건너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34번가(34th St.)를 건너기
위한 횡단보도.

34번가는 변화한 상업가로이자
양방향통행가로이기 때문에 다른
가로에 비해 넓고 통행량도
많다.

다른 가로와의 교차점에 비해
보행공간의 단절 정도 역시
상대적으로 심하다.



34번가와 33번가 사이 구간.

교차로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6번가의 주행공간을 최소한만 남기고, 길 양쪽으로 원래 브로드웨이에 속하던 삼각형 모양의 공간을 모두 보행자영역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좁은 보도가 바깥쪽으로 넓게 확장되면서, 의류판매점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앞에 근사한 휴게공간이 생겼다.



건물 보수를 위한 가설시설물 때문에 어두컴컴해진 보도 대신 쾌적한 통행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예전에 브로드웨이와 6번가 사이를 구분하던 교통섬의 흔적이 남아있다.



Herald Square에서 Madison Square 방향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보도 바깥쪽으로 확장된 보행로.

한편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다른 한쪽으로는 보행자들의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며, 바닥포장재의 색을 달리하여 각 영역을 구분지어주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통행이 차단되면서 6번가를 관통하여 직진하는 흐름은 더 빨라졌다.

이 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직접 맞닿아 있고, 보행자영역의 경계에는 자동차의 침입이나 보행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해럴드 스퀘어 파크와 대칭으로 위치한 Greeley Square Park.



이 공원의 입구에도 역시 커피와 간식거리를 파는 간이매점이 있다.



34번가와 백화점 등 근처에 대규모 집객시설이 밀집한 건너편의 헤럴드스퀘어파크에 비하면 공원 내부공간의 이용도는 조금 뜸한 편이다.

혼잡하고 변화한 주변 가로와 다르게 공원 안은 조용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두 공원은 같은 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공원 입구의 화장실과 이를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는 전담 관리인의 모습이다.



그릴리 스퀘어 파크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남쪽으로 다시 연결되는 브로드웨이의 모습.

기존 보행공간을 확장하지는 않았지만 차단된 인접 구간의 영향으로 한산하고 안전한 느낌을 준다.

도로 가운데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버퍼존이면서, 노상주정차가 가능한 지점을 제한하는 역할을 겸한다.



앞서 살펴본 연결구간에서는 바닥의 재질 변화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차선 하나를 통째로 보행공간으로 바꾼 데 반해, 헤럴드 스퀘어를 기준으로 남쪽 구간에는 교통섬, 식수대, 노면표시처럼 부분적이고 간편한 기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보행자공간이 아닌 주정차공간을 버퍼존으로 활용하는 등, 가로변 용도/시설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적 측면이 고려되었다.



(4) Madison Square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주행공간을 축소하면서 기존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던 조그만 광장 주변으로 공공공간을 대폭 확장하였다.



베이지색이 확장된 영역이며, 회색 콘크리트로 돌출된 부분은 원래 도로 경계를 표시하여 구분하던 교통섬의 흔적이다.

확장된 공간에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차로의 동쪽에 있는 Madison Square Park와 면한 보도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한껏 확장되었다.



이곳 역시 원래 있던 교통섬이나 단차는 건드리지 않고, 기존 도로의 표면에 착색 포장재를 덧칠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시공되었다.



확장된 영역의 경계에는 이동식 화분이나, 벤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자연석을 놓아 볼라드의 역할을 겸하게 하였다.



Madison Square의 남쪽에는 뉴욕의 오래된 랜드마크이자 다리미(플랫아이언, Flat Iron)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예각 삼각형의 고층건물이 있다.

이 건물 앞에도 넓은 광장이 형성되었다.



한쪽에는 사용하지 않는 의자나 테이블을 쌓아 보관하고 있다.



원래 유니온 스퀘어에서 열리던 그린 마켓이 홀리데이 마켓을 개장하기 위한 준비기간 동안 임시로 매디슨 스퀘어에서 열렸다.



각 상점의 위치와 관련 정보들을 표시한 지도.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새로 확장된 보행공간을 의미한다.



그린마켓에서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도시공공공간의 활용에도 도움이 되지만, 도-농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윤리적 소비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5) Union Square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유니온스퀘어 구간은 제대로
답사할 수 없었다.

답사당일 공원 주변이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고,
안쪽에는 긴급 재해복구작업을
지원하는 특수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Union Square 인근의 도로
한편에 조성된 보행공간과,
평상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

* 출처: PPS 제공



Broadway에서 Union Square에 들어서는 진입부. 베이지색으로 도색된 보행공간과 휴게시설 너머로 그린마켓과 공원의 모습이 보인다.

* 출처: PPS 제공



그린마켓을 위해 설치된 부스들. 이러한 벵룩시장은 도시공간에 용도와 활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 출처: PPS 제공



Holiday Market이 열렸을 때의 모습.

* 출처: PPS 제공

2. 하이라인 답사

-
- 일시: 11.6.(화) 오후 1:00~
 - 장소: 하이라인 1구간(Gansevoort St. - 20th St.), 2구간(20th St. - 30th St.)
 - 답사목적
 - 설계기법 상의 특성을 고찰하여 사례연구 심화·보완
 - 도로단면구성의 변화, 보행공간의 구획과 경계, 횡단경로와 시설, 포장, 식재, 가로시설물 등 물리적 현황 조사(세부내용 확인 및 사진 촬영)
 - 가로변 입면, 업종, 용도, 보차통행량, 이용자활동·행태, 유지관리·운영실태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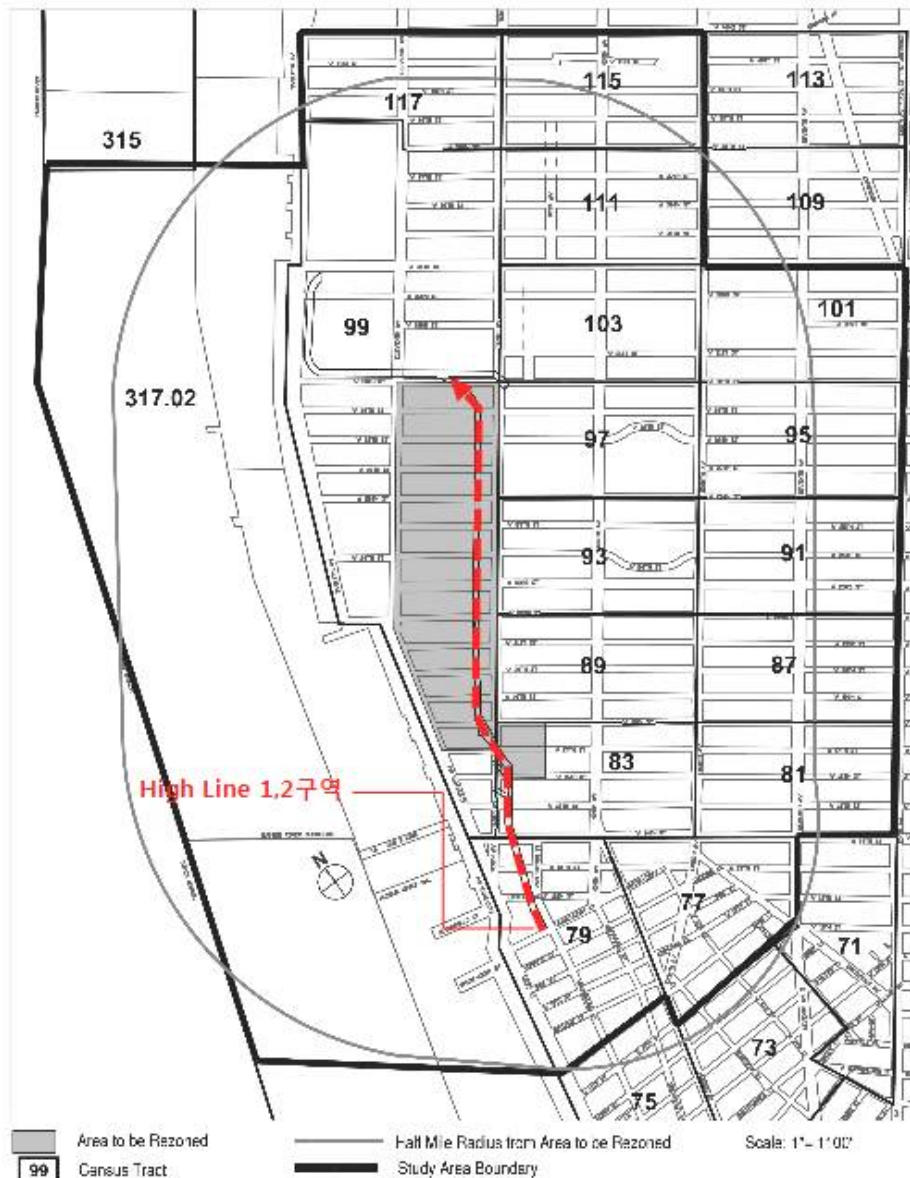
(1) High Line의 개요

- 하이라인은 1930년대에 건설된 산업철도로서 1980년대에 폐선되어 20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시민들과 주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도시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됨
- 하이라인 주변은 미드패킹 지구(Meatpacking District)로 고가 철도인 하이라인을 통해서 인근 부두에서 공장과 창고로 원자재 및 완제품을 운반하였으나, 고속도로와 화물트럭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됨
- 1960년대에 들어서 철도의 일부가 없어지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폐선되었으며, 200년대 초반 하이라인의 철거를 주장하는 하이라인 주변의 땅 소유자들에 의해 철거 위기에 놓이게 됨
- 그러나 이를 뉴욕의 공공공간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시민단체 'FHL (Friends of the High Line)'가 발족하고 뉴욕시민들의 지원으로 2003년 철거위기에 있던 하이라인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짐

(2) High Line의 계획 특성

- 하이라인은 일부 구간이 단절되고 붕괴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기점으로 총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존의 폐선로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전제하에 보행환경이 계획되었음
- 예를 들어 일부 구간에서 건물을 관통하거나 선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여러 갈래로 갈라지거나 도로 위를 지나는 지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간적인 장치들을 도입하였음
- 2층 높이의 옥상정원으로서, 지면 수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이동시설을 전체 구간에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치하였음

- 보행로의 포장에는 대리석이나 타일 등과 같은 재질 등을 활용하였으며, 나무나 녹지 등이 조성되는 공간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녹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함
- 녹지 및 옥외 공간 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연장과 벤치, 나무 식재 등을 두어 공연이나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하여 전체적인 공간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함
- 하이라인 주변 필지들이 용적률에 맞게 건설될 경우 보행로의 일조환경이나 조망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권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유주나 개발주체 간에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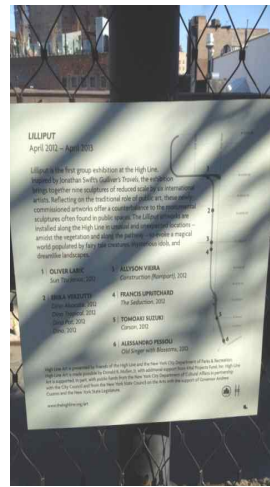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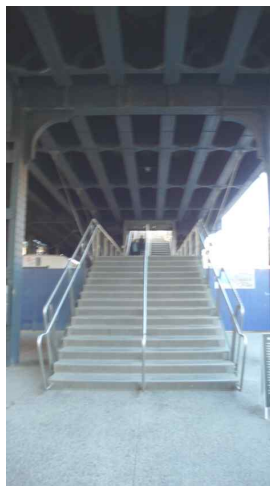


(3) High Line 답사 내용



(위)하이라인의 남쪽방향의
시점에서 첫번째로 위치한
접근로

(아래) 접근로 초입에
위치한 안내지도(좌)와
하이라인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계단 입구(중),
하이라인의 각 공사구간과
함께 구간별 공사시행
연도를 같이 표시해 놓은
현황도(우).



하이라인의 남쪽 방향
최하단 부분.

단면부분에는 유리막을
설치해 놓았다.



하이라인이 건물을 관통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래 필지의 소유주들이 하이라인 상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중권을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용도는 신축 호텔로, 하이라인 아래 부분은 레스토랑 겸 로비로, 상층부는 객실과 사설 클럽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이라인에서 건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는 따로 없었다.



첼시마켓과 근접한 14번가 출입구에 설치된 계단(좌)과 엘리베이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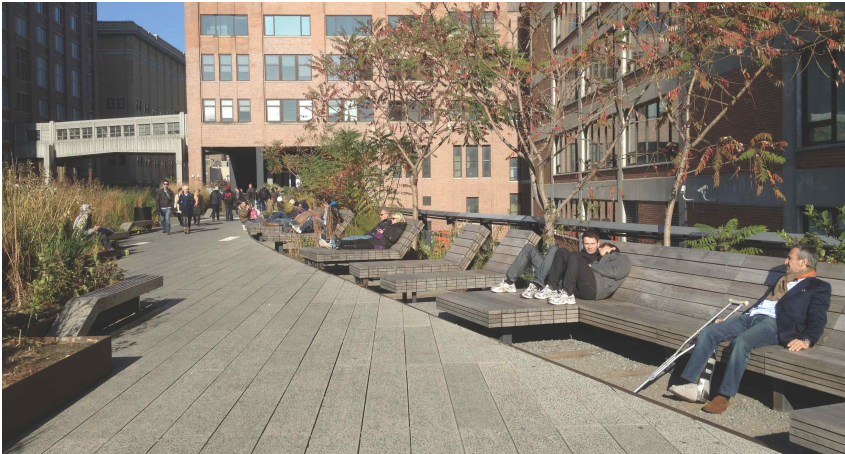


일부 구간에는 폐선된
철도레일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디자인요소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보행로를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치와 의자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방향성을
강조하는 바닥패턴과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었다.

보행로의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식재들이 심어져
있는데, 포장된 부분과의
경계를 처리하는 방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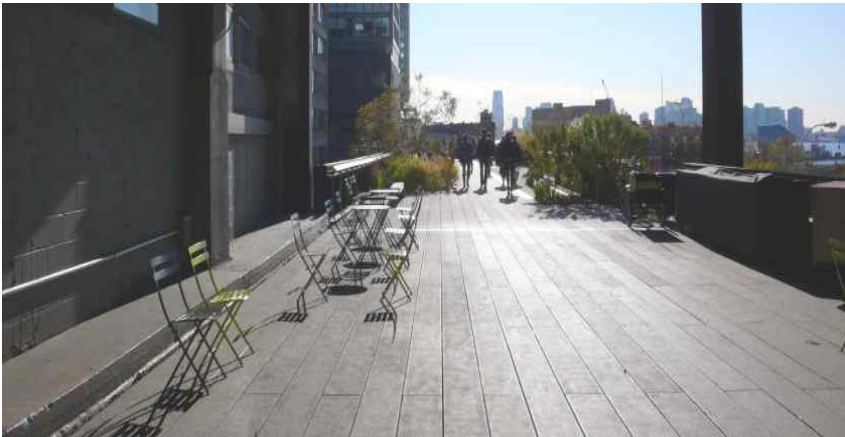


사진에서 가운데 쪽에 위치한 등받이가 있는 긴 벤치의 경우, 기존 철도의 작동원리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레일을 따라 좌우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옛 과자공장(NaBisCo)을 개조한 첼시마켓 건물을 하이라인이 관통하며 교차하는 지점.

건물을 지나는 구간에는 관련 서적이나 물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간이판매대와 보행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놓여 있으며, 거리 연주자들이 작은 공연을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이라인 전체 구간에서 보기 드물게 2층 높이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공공에 개방하고 있다.



하이라인의 본선에서
갈라져나와 주변건물로
연결되던 구간들을 그대로
살렸다.



보행로 주변으로 군데군데
작은 공간들과 벤치 그리고
다양한 식재를 배치하였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보행로의 바닥 재질이나
시설물의 배치 또한
다양하게 바뀐다.

석재로 포장된 영역과
식재된 부분이 만나는
경계부도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섬세하게 처리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일률적이고 직선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하이라인이 꺾이는 지점에서는 데크 상단의 일부가 사각형으로 확장되면서 계단형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유리창으로 된 전면부의 스크린을 통해 하이라인 하단부의 전경을 관망할 수 있으며, 공연·영화상영 등 작은 이벤트가 열릴 수 있는 객석과 무대처럼 활용된다.

선형이 지배적인 전체 구간에서 이와 같은 평면적, 입체적인 변화는 공간구성의 다양성과 재미를 더해준다.





보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트럼펫이나 작은 북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의 악사들과 빈번하게 마주치게 된다.



평탄한 보행로를 이용하여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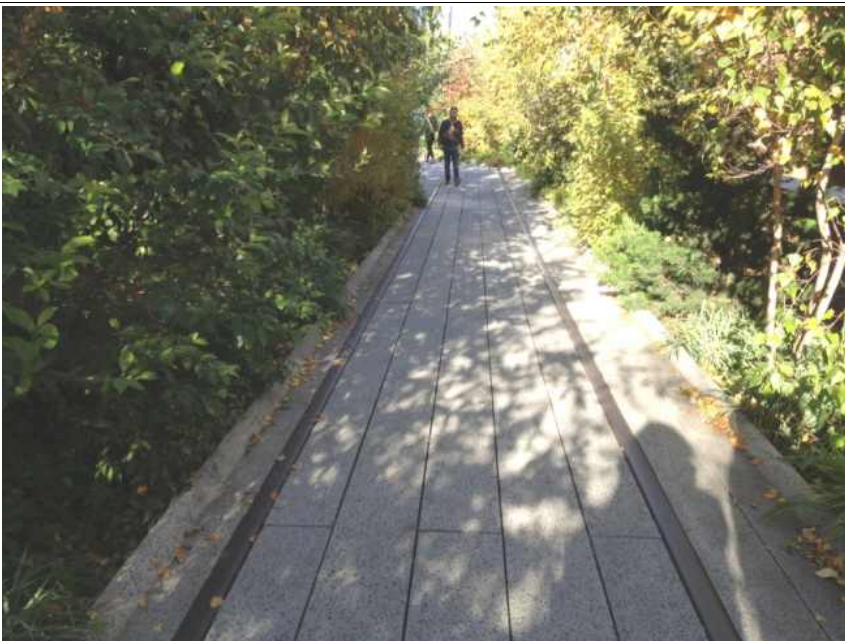
하이라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진입부의 모습

기존 철로의 난간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계단을 난간높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설치하였다.



하이라인 보행로 옆에 위치한 건물들의 벽면을 활용하여 공모를 통해 당선된 예술작품들이 설치되고 있다.

한편에는 간단한 설명을 담은 안내판을 세워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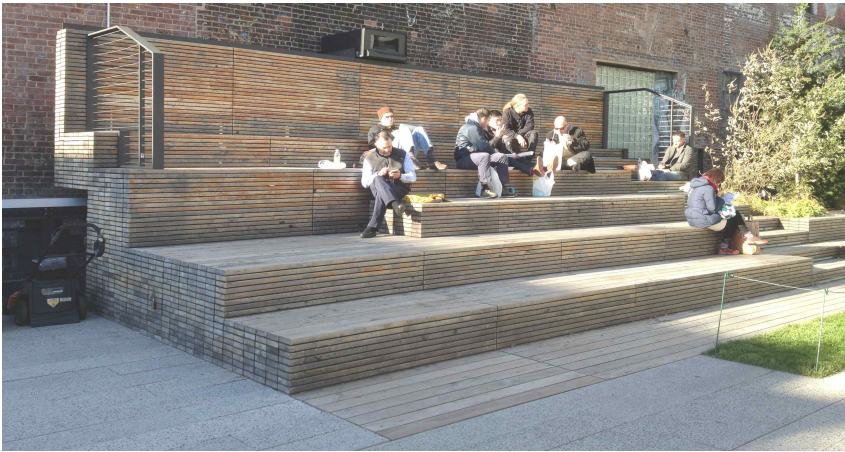
제2구간은 1구간에 비해 레일 상부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평면적인 변화나 다양성은 적은 편이다.



평면적인 변화 대신 좁은 공간 안에서 수직적, 입체적으로 다양한 공간구성을 시도하였다.



보행로 옆 휴식을 위해 마련된 공간 한편에서는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자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인다.



보행로 중간에 위치한 녹지공간과 왼편에 자리한 계단형의 쉼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샌드위치나 커피를 마시며 평일 낮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영구음영이 지는 구간.

기존에 형성된 독특한
식생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서는 보행로를
입체적으로 띄웠다.

보행로 아래로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하부 레벨에는 유지관리
인력이 통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접근로가 마련되어
있다.





하이라인과 동서 방향의
가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마련된 공간적인 장치.

동쪽으로 향한 의자에
앉으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의자 앞쪽에 설치된 프레임
때문에 하이라인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이
한편의 영화처럼 느껴진다.



하이라인 2구간이 끝나는
지점이다.

차고지 주변을 선화하는
제3구간의 공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폐쇄된 철문
너머로 아직 다들여지지
않은 녹지가 보인다.

Ⅲ. PPS 장소만들기 워크숍

1. 교육과정 개요

PPS Training Course / Placemaking : Making It Happen

- 일시: 2012.11.7.(수) - 11.9.(금)
 - 장소: PPS Office, 7th Floor, 419 Lafayette Street, NYC
-

o PPS(Project for Public Spaces)

- 도시 공공공간의 장소성 개선과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5년 설립된 비영리법인(<http://www.pps.org/>)
- 좋은 정책과 전문적인 실천을 통해 ‘장소만들기’의 접근 방법과 전략을 확산하고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해왔으며, 지금까지 미주 전역과 전 세계 40여개 국가에서, 2,500건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였음
- William H. Whyte가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1980)”라는 연구에서 제시했던 좋은 공공장소의 작동 원리를 기반으로, 장소의 계획과 설계, 기술적인 지원과 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음

○ 교육과정 소개 및 특성

- Placemaking: Making It Happen은 PPS가 2년마다 개최하는 정규교육과정의 하나로 강의와 답사, 실습 및 토론을 포함하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구성됨
- 1박 2일로 구성된 입문과정인 How to Turn a Place Around가 Placemaking의 가치와 원리, 방법론을 다룬다면, 중급과정에 해당하는 Making It Happen은 장소만들기의 접근 방법이 실제로 적용 및 구현된 사례들을 통해 실행 및 관리차원의 실무적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참여 인원

- 참가자격에 제약은 없으나 주로 각 지역에서 공공공간의 관리/계획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함
- 교육 효과와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과 고민하는 부분을 교육과정과 내용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에 따라 매년 교육의 방향과 내용, 효과가 조금씩 달라짐

- 이번 교육과정에는 건축과 도시설계 분야 이외에도 지역 공공기관/시설/사업의 관리자, 커뮤니티활동가, 전직 코미디언, 역사보존가, 큐레이터,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마케팅/소통 전문가, 부동산 분석 전문가, 지역 개발 컨설턴트, 비영리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 및 전공분야에서 활동하는 20명이 참여하였음
- 참가자들의 국적 또한 주최지인 미국과 우리나라(연구진 2인) 이외에도 캐나다(2), 콜롬비아(2), 덴마크(1), 레바논(1)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서로 다른 관점과 지역적 맥락을 비교하여 논의할 수 있었음
- 정규 교육프로그램 사이사이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각 참가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나, 강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후 있을지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

○ 교육 일정

- 주된 교육내용은 7개의 강의와 사례지 답사, 장소평가 실습 및 토론으로 구성되며,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

Day 1	13:30	등록, 환영사 및 참가자 자기소개, 목표 및 관심분야
	15:00	장소만들기의 과정과 도구 / Kathy Madden
	16:00	Break
	16:30	장소만들기를 활용한 커뮤니티 미래전략 / Fred Kent
	17:30	Reception + Gallery Walk: 참가자들의 프로젝트 자유발표 및 토론
Day 2	08:30	Breakfast
	09:00	원칙에서 실천으로: 공공공간의 실행과 관리 / Norman Mintz
	10:30	Break
	11:00	장소의 건축: 설계과정 뒤집어보기 / Alan Hantman
	12:00	Lunch
	13:30	Walking Tour: 브라이언트 파크, 록펠러 플라자, 헤럴드 스퀘어 / K.Madden, N.Mintz & A. Hantman
	16:30	Reception
Day 3	08:30	Breakfast
	09:00	도시공간을 바꾸는 가볍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 / Eldon Scott
	10:30	장소 평가 실습 : Astor Place / 조별 토론 및 발표
	12:30	Lunch
	13:30	성공적인 시장(market)을 만드는 비결 / Kelly Verel
	15:00	Break
	15:30	공공공간 관리: 제한된 자원과 제약 속에서 일하기 / Andy Manshel
	17:00	최종 정리 및 토론

2. 강연내용 요약

1) 장소만들기의 과정과 도구 / Kathy Madden

• 일시: 11.7.(수) 15:00~16:00

• 강사소개

- Kathy Madden, PPS의 설립 초기인 1975년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현재는 상임 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으로 장소만들기 교육과 공공공간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 부문을 맡고 있음
- 환경디자이너로서 특히 도시공원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전문가이며, 1995년에는 도시공원협회(Urban Parks Institute)를 설립하여 2000명 이상의 공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학회 및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강의 주제

- 장소만들기란 무엇인가?
 - 장소만들기 과정은 전통적인 계획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
 - 장소만들기의 원칙을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장소만들기에는 어떤 도구들이 활용되는가?
-

○ 왜 장소가 중요한가?

ex1. 맹벽: 인간성보다 건축이, 사람보다 건물이 우위임을 보여주며, 도시공간을 황폐화함

ex2.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 앉을 수 있는 공간, 다른 사람들, 수공간, 음식...

=> 디자인보다 중요한 것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며,

장소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 장소만들기의 정의

1. “(장소만들기는) 동네나 도시, 지역을 개선하는 모든 아이디어와 직접적인 수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이번 세기에 등장한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잠재되어 있다.” - Metropolitan Planning Council
2. “장소만들기는 역동적인 인간 기능이다. 해방하고, 주장을 내세우며, 미화하는 행위인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3. “동네나 도시를 빨리 빠져나가고만 싶은 곳에서 떠나기 싫은 곳으로 바꾸는 일이다.”

○ 좋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11가지 원칙

기본전제	1. 커뮤니티가 전문가이다. 2. 디자인이 아니라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3. 혼자서는 할 수 없다. 4. 그들은 항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계획 및 활동기법	5. 단지 관찰만으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6. 장소만들기의 비전을 개발하라
생각을 행동으로	7. 10의 법칙/삼각법(Power of 10/Triangulation) 8. 형태는 기능을 지원한다.
실행	9.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 10. 돈은 문제가 아니다. 11.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더 나은 공공공간을 가로막는 원인들

- 두려움, 협소한 개발목표, 정부구조와 조직

사업 위주의 계획 학제기반의 계획/설계	vs.	장소 위주의 계획 커뮤니티 기반의 과정
협소한 목표 정치적 동기 전문분야가 범위를 결정 전문가에 의존 고비용 커뮤니티의 저항 정적인 디자인 => 장소의 제한적 경험		커뮤니티의 열망, 요구,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표현 공통의 비전을 이끌어내어 협력자와 재원, 창의적 해결방안을 유도 전문가는 커뮤니티의 자원 역할 디자인은 희망하는 용도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 기존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해법 시민들이 자신의 공공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역량과 헌신 강화

○ 장소만들기의 도구 : 10의 법칙/삼각법

- 어떤 동네/지역/도시가 매력적인 곳이 되려면 적어도 10개의 목적지가 있어야 하며, 각 목적지에는 적어도 10개의 장소가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며, 각 장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가 적어도 10가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선택의 다양성과 행위 간 상호 연계가능성을 의미

- 삼각법(Triangulation):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고 중첩시켜 상승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 ex.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회전목마 옆에 야외 독서공간(Reading Room)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조그맣게 어린이들을 위한 Kids' Reading Room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음

○ 장소만들기의 도구 : 장소 평가 실습/응용프로그램

- 스스로 주변환경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찾아내는 작업 -> 장소만들기의 시작
- 장소가 접근과 연결, 편안함과 이미지, 사회성, 용도와 활동 4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
- 좋은 장소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특성들과(Intangibles), 이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들(Measurement)을 제시하여 직관적이지만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
- 최근에는 모바일 앱(App)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기도 함

○ 장소만들기 방법론 : 가볍고 빠르고 저렴하게(Lighter, Quicker, Cheaper)

- 지금 당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
-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변화를 위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원을 끌어 모으기가 쉬워진다.
- 편의시설, 공공미술, 행사개최처럼 단기간 안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의 요구로부터, 그들만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것

○ 지역에 산재한 장소만들기의 기회들

- 도심/교통 : 버스정류장, 기차역, 중심가, 국지(이면)도로
- 공원, 광장, 시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 도시 공공시설: 도서관, 병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 민간 개발: 복합용도(주거, 상업, 업무)
- 주변을 돌아보면, 작은 것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성 by John Kotter

- 비전을 가꿀 것
- 훌륭한 소통가가 될 것
- 장애물을 찾을 것
- 강한 팀을 조직할 것
- 현실에 안주하지 말 것
- 단기적인 승리를 거둘 것
-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것
- 변화를 지역사회의 문화로 연결할 것

2) 장소만들기를 활용한 커뮤니티의 미래 전략 / Fred Kent

• 일시: 11.7.(수) 16:30~17:30

• 강사소개

- Fred Kent는 PPS의 창립자이자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음
- 도시공간의 활성화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스마트 성장, 미래 도시 분야의 권위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강연 및 자문, 교육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옴
- 지리학과 경제학, 교통공학, 계획학, 인류학을 전공하고, 도시행태연구의 대가인 W.H.Whyte와 함께 1960년대부터 뉴욕 시내 소규모 공공공간의 활용행태를 실증적으로 기록, 분석하는 조사연구에 참여했으며, 십여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원칙을 도출하였음
- 이와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1975년 PPS를 설립, 더 나은 공공장소를 위한 변화와 실천을 주도해왔음

• 강의내용

- 장소만들기는 어떻게 공동체의 활성화로 연결되는가?
 - 공동체의 미래 전략에서 장소만들기가 왜 중요한가?
 - 기존의 방식은 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장소만들기의 접근방법과 과정은 민간-공공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

○ 강의 주제와 방향

- Kathy가 장소만들기의 구체적인 기술과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면, 더 큰 맥락에서 장소만들기와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짚어내고자 함
- 무언가를 이해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함
- Paris에 있는 예술작품의 예: 디자인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요소들을 배치함→ 공간의 창의적 사용이 장소의 역동성을 만들어 냄

○ 열정적인 바보들(Zealous Nuts)

- 지역사회에서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새로운 일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들

○ 거꾸로 뒤집어보기, Upside Down, Right Side Up

- 개인/집단/시설들이 각자 고립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 ⇒ 도시 광장, 만남의 장소, 시장 등을 구심점으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때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가능

○ 장소-거버넌스: 정부의 진화과정(by Peter Smith)

Phase 0.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Informal	Project -Driven	Discipline -Led	Place -Sensitive	Place-Led
Big Government	--->			Facilitative Government

- 최근 뉴욕시의 변화도 아직까지는 장소보다는 디자인에 치중해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가주의에서 벗어나기: 예를 들어 'urban'이라는 단어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음-> 비일상적이고 어색한 단어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현장에서 더 잘 소통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함
- 전문성보다 상식에 기반, 학제 간 장벽을 넘어 통합적 접근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시설-요소, 분야, 움직임들이 장소를 중심으로 통합

○ 장소와 장소 거버넌스의 이점

- 지역 경제를 형성하고 지지함
-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풍요롭게 함
- 더 빈도 높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활성화함
- 접근성을 향상(보행안전, 대중교통, 이동편의, 매력적인 목적지, 용도간 연계)
- 공공보건과 쾌적성을 증진
- 더욱 다양한 인구구성(Diverse Population)을 유도

○ Perth Cultural Center

- 박물관(Western Australian Museum)과 미술관(Art Gallery of WA), 주립공연장과 도서관, 대학(Central Institute of Technology)등 주요 공공시설이 밀집한 문화적 중심지
- 기존의 좋은 장소를 살리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42개의 '장소'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차별화되는 특성/기능을 부여 -> 전체 장소의 활성화로 연결
- 각 공공시설마다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열망,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부분의 합 < 전체)
-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분수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생태연못으로 바꾸고, 썰렁한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직접 가꾸는 텃밭과 걸터앉을 수 있는 화단을 조성, 권위적이고 무미건조한 건물 출입구 주변에 아이스크림 등 군것질거리와 노천테이블, 홍보부스와 거리공연 등을 유치하여 활기를 불어넣음
- 즉각적인 조치 / 장기적인 개발계획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행

○ Lincoln Center

- 건축상을 수상한 훌륭한 건물이지만 장소로서의 매력은 별로 없었음
- 머무는 사람이 없는 텅 빈 외부공간 -> 분수대 주변에 걸터앉을 수 있는 단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음
- 앉아있는 사람들이 공간에 활기를 더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임

○ 변화를 만드는 의제들(Transformative Agendas)

- 공동체의 구심점 : 장소의 건축
- 복합용도 공공개발: 목적지 만들기 (Granville Island)
- 지역경제, 공동체의 건강과 공공 시장
- 교통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 : 장소로서의 가로 + 정류장 너머의 공간

○ 2개의 도서관 이야기

- 멋진 건물 + 텅빈 외부공간과 맹벽 vs. 수수한 건물 + 사람들이 즐겨찾는 열린 공간
-> 어느 쪽이 성공한 도서관인가?
- 희소한 정보와 자원을 보관, 전달하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은 무너지고 있으며, 대신 공공공간으로서 커뮤니티에 어떤 역할/기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Green Buildings and Hi-Tech Architecture vs. Place

-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도 좋지만, 장소에 대한 고려 없이는 죽은 공간을 만들 뿐
- 건물의 지속가능성, 환경적 영향, 친환경적 재료사용, 자연 친화 등도 중요하지만, 장소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도 고려해야 함
- > 활기를 형성하는가, 주변의(물리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장소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수용하는가?

○ 복합용도 공공개발: 목적지 만들기 (Granville Island)

- 기존 산업용지 재개발 사례 (Brownfield Redevelopment)
- 벤쿠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지구이자 여러 용도가 혼합된 독특한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공적인 관광지 중 하나임
-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가능, 각 부분의 특성이 모여 전체 장소의 전망을 만들어냄
- 경제적 성공: 매출, 고용 세입 등 -> 장소에 대한 공공 투자의 당위성 입증

○ Sherbourne Common, Toronto

- 건축, 조경상을 수상한 프로젝트로, 고급 자재와 섬세한 시공, 독특하고 매력적인 조형물들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활동을 끌어들이지는 못함
-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비판에 대해, ‘당신의 영역이 아니니 참견하지 말라’는 대응,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공장소를 만들기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장소가 너무나 흔하게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 지역 경제, 공동체의 건강과 공공시장

- 시장 : 도시/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도시공간으로 통합하는 역할
- 홍콩 : 정부가 전통시장의 무질서함을 타파의 대상으로 보고 없애려고 함
- 바르셀로나: 시내 어느 곳에서나 도보 10분 거리에 시장이 위치함(Catchment map)

○ 교통을 통한 공동체 만들기 : 장소로서의 가로

- 은행 바로 옆 가게 장사 잘 안됨: 사람들이 땀벽부분을 지날 때에는 주변에 신경쓰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지나쳐버리며, 2~3가게는 지나야 원래 속도로 돌아올 수 있음
- 차를 위한 설계를 하면 차만 더 많아지지만, 사람을 위한 설계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됨
- 노인과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가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가로가 바람직함
- 파리의 불바르 -> 혼잡한 도로에서 5년만에 보차공존가로로 전환
(보도 확폭, 완충영역이 있는 자전거도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 Littleton, NH: 가로 자체의 경관보다 인접건물-외부공간의 ‘이용’에 주목
가로 전체를 장소로 보고 디자인, 거리에 머물 이유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주차설계의 해법 모색

○ Shared Streets(Hans Monderman)

- 혼잡한 교차로를 안전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
(교차로의 신호나 차선구분, 보차구분을 없애 더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유도)
- 자동차가 마을 안에서 조심해서 행동하게 하려면, 먼저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 본질적으로, (보차공존은) 국가에서 개인과 공동체에게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함
- 시각적 접촉(Eye-contact)과 자율적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자동차가 도로 공간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 (* 법적 책임의 문제 중요)

○ 건물 안의 활동, 용도를 가로로 끌어내어 활성화한 사례들

- 건축은 ‘목적지’를 만들고, 시장은 구매력을 이끌어내는 역할, 가로는 어느 지역/대상지에 서나 중요한 구성요소
- 30년간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왔던 New Jersey의 교통부 공무원이 이제는 PPS의 열성적인 지지자가 됨 (사회적인 인식과 요구의 변화)
- 단순한 교차로에서 활기찬 중심공간으로: 코너 건물 저층부의 장소성 부여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파리의 카페)

○ LQC: 공간을 살리는 작은 아이디어의 예시

- 네덜란드, 여왕의 생일 기념행사, 아이들만 물건을 팔 수 있는 벼룩시장 개최
- 하버드 대학 내 공공공간: 제한된 예산과 인력, 시간으로 개선
초기 형태중심의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뭐가 필요하며 얼마가 드는지를 논의 -> 6주간 실험적으로 도입 (펜스를 이용한 사진전, 요가, 영화상영, 음악회, 음식판매대, 파라솔, 그래피티 등)
민주적 공간 = 무엇이든 할 수 있다? ->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음
- 파리 플라쥬: 선베드, 모래사장, 파라솔+테이블, 키오스크, 수영장, 어린이를 위한 모험놀이기구, 공연, 댄스강습 등

○ 장소만들기의 전략

Make Things Happen N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깜짝 이벤트(Pop-ups)와 LQC의 전략들을 활용 - 단기(3-12개월) ~ 장기(2년)
Create Energetic Anchors of Activ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지점에서, 피크타임을 공략할 것
Crowd-Source Id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에 대한 소문과 기대(Buzz and Excitement)를 키울 것
Make it a Movable Fea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개 모임과 모바일 관리인력 활용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장소만들기 프로그램 - 홈페이지 운영 등 디지털 매체와 기술을 활용
Get Life on the Stre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을 안전하고 매력적으로 변화 - 보행을 장려
Bring the Inside 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하고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저층부 만들기 - 모서리 부분은 더욱 두드러지게 조성

○ 훌륭한 공공공간의 특징(요약)

- 건강한 활동을 낳는다.
- 사람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 장소에 주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 장소를 만들려면 많은 분야와 기술이 필요하다.
- 장소를 만들려면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 장소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설은 중요하다.
- 어떤 결말이 올지 알 수 없다.
- 모든 장소에는 각자의 정체성이 있다.
- ‘탁월한 것’보다 덜한 것은 가질 수 없다.
- ‘열정적인 바보들’이 필요하다.
- (지속적인) 캠페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사려 깊고 헌신적인 작은 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 - 마거렛 미드

3) 원칙에서 실천으로: 공공공간의 실행과 관리 / Norman Mintz

- 일시: 11.8.(목) 09:00~10:30
- 강사소개
 - Norman Mintz,
 - 산업디자이너, 도시설계가, 역사보존가이자 가로환경 개선 분야의 권위자
 - National Trust의 Main Street Program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음
 - 약 40년간 도시 가로를 중심으로 지역의 통합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왔으며, 이 분야에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강의내용
 - 장소만들기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LQC + Triangulation 개념의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도심 상업지역 내 공공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통합적 역할
 -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핵심 요인들

○ 공공공간 실행 및 관리의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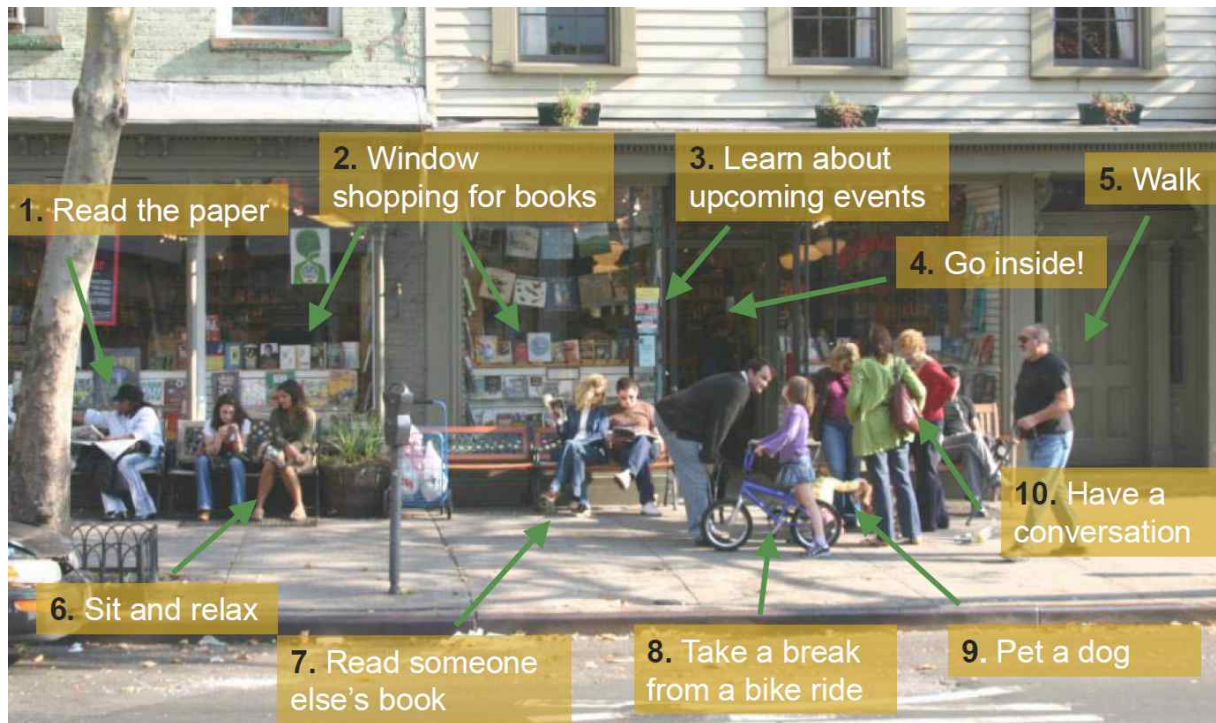
장소만들기에 주목하라.	디자인보다 활동, 행사, 사람들이 중요함, 공동체와 함께 일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라.
조직하라.	우선순위를 세우고 단기-장기적 계획을 구분, 사적 영역에 주목,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라. 사소한 것이 차이를 만든다. 흘러간 아이디어들을 되새겨보라.
활동영역을 넓혀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들을 참여시켜라.
지지층을 만들어라.	지역 이해관계자, 공무원, 상인, 소유주, 개발업자, 단체장, 시민단체, 문화단체, 지역 재단, 언론매체, 중개인, 소유자, 노인들, 학교 등 지역에서 함께 할 아군을 만들어라.
이용자들	사무직 근로자들, 쇼핑객, 방문객,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하라.
교육하라.	발표, 워크샵, 회의, 신문기사, 답사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로 계기를 만들라.
소통하라.	보이지 않는 개인적 성향을 존중하라. 관계를 구축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라. 인내심을 가지고, 처세술을 활용하며, 늘 새로운 생각에 열려 있어라.
자신이 가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라.	용도구역부터, 자원봉사자까지 (제도적 수단 ~ 인적 자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재정적인 보상, 저리용자, 보조금, 기술적 지원 등
실행하라.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확히 알고, 반영하라. 지문가 자원봉사자, 공무원, 공제단체, 일반적인 이익집단, 재단, 운동동호회, 직업단체, 학교, 후원자들, 그들의 지지를 적극 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마케팅/홍보	잘 팔리는 것이 중요하다.
탄력을 붙여라.	일이 스스로 계속 굴러가게 하라.
지속가능성을 관리하라.	일에는 언제나 끝이 없다.

○ 보도의 중요성

- 공공공간,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 사람-활동 연결
- 대도시 중심가나 작은 도시나 소도읍이나, 보도를 활성화하는 일은 중요한 도전과제
- 도시-지역을 살리는 것 = 보도에 더 많은 사람과 활동을 끌어들이는 것
- 도시 가로에서는 서로 다른 분야와 지역, 경험, 문제들이 모두 만나고 있음
- 40년 동안 도시가로의 실행 및 관리에 관한 일을 해오면서, 커뮤니티를 끌어들이고, 이러한 활용이 다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도록 힘써옴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Kathy 와 Fred가 제시한 기본적인 틀 위에 이러한 일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디테일을 더하고자 함

○ Triangulation

- Triangulation이란, 여러 가지를 결합하는 것, 더 재미있는, 좋은 장소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하나의 요소에 무엇을 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함



10의 힘(Power of 10): 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10가지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는 장면

○ LQC : 가볍고 빠르고 저렴하게

- 상인이든 공공이든, 가능하면 돈을 덜 쓰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
 - 돈은 중요하지만, 없다고 못할 일은 없음(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
- ex) 주차구획 하나를 없애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조경시설 도입

- > 교통이나 주차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 SF의 박물관 입구의 캐노피 공간: 의자와 테이블만 갖다놓아도 썰렁하고 위엄있는 건축적 공간이 훌륭한 공공공간으로 바뀔 수 있음 (멋진 공간에, 활기와 어메니티를 더함)

○ 만남의 장소 1: 극장

- 단순한 오락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잠재력을 가짐
- 극장의 대형상업공간/멀티플렉스화로 기존 소도읍에는 문을 닫는 극장들이 많으며, 빈 극장들이 방치되기도 함
- 웰스보로(Wellsboro, PA)시에서는 오래된 아카데미 극장이 헐릴 위기에 처하자, 10명의 시민이 만달러씩 기금을 모아 건물을 매입하고 지역 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킴
- 영화 뿐 아니라, 무대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이벤트 개최/수익성보다는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시도임
- 공연/문화행사는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오래된 제과점을 공연, 전시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기도 하고, 더 저렴한 예로는 주차장이 비는 주말을 활용하여 벽에 스크린을 걸어 주 1회 영화상영을 하기도 함

○ 만남의 장소 2: 농산물 장터(Farmers' Market)

- 빈 점포, 사람이 없는 가로로 고민하던 소도읍
- 주말이면 2~3개 트럭이 와서 식물이나 화분을 판매함
- 이것을 기존이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확장, 활성화하자는 아이디어
 - > 노점 개수를 15~20개로 늘리고, 빈 주차장에 자리를 잡음
- 사람들이 원하는 것, 심리와 사회적인 생리를 잘 이해해야!

○ 만남의 장소 3: Public Squares

- 비어있는 파고라를 더 잘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방법 고민
- 목요일 저녁마다 음악 공연을 개최하여 커뮤니티를 초대

○ LQC의 필요성/이점

- 비용이 많이 들수록, 실패했을때의 타격이 크다.
- 한때 야구장, 컨벤션센터 같은 걸 유치하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됨
- 작은 것이라도 성공을 거두는 것이 중요 -> 다음 단계를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음

○ 커뮤니티를 끌어들이는 다양한 방법

- Mansfield, OH에서는 회전목마를 설치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거둠
- 죽어가는 도심을 살리려는 상인들의 절박함에서 시작,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했지만, 갑자기 어디에서 시작해야할지 막막했음
- 처음 누군가 회전목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가 반대의견에 부딪힘
-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계속 거론되면서 몇 년간 논의만 되다가, 결국 한번 해보기로 결심하게 됨
- 아이들이 모여들면서, 구경하는 노인들을 불러들이고, 이것이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주변 상점들과 상권에 도움이 됨

○ 내부공간

- Netty's Coffee Shop: 아침마다 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떨던 작은 공간
- 이곳이 없어지면 공동체를 위한 구심점이 없어질거라는 위기의식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문화교류센터(Center for Cultural Exchange)'로 개장

○ 이벤트

- 공동체의 정신, 장소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 만들기
-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고, 장소의 이용을 확장하기 위한 재미있는 상상, 수백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있음
- 허드슨 시의 역사도심, 30개의 갤러리가 밀집해있는데 주말에는 모든 갤러리가 참여하는 예술답사(Artswalk) 이벤트 개최

○ 경청과 첫인상의 중요성

- 주민들이 전문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
- 열린 자세와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
- 처음 지역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무런 편견없이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
- 이 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에 형성되는 첫인상이 이후의 일/관계에서 매우 중요함

○ Providence, RI(질문)

- 앞서 논의된 사례들은 빈 공간, 버려진 공간에 사람과 활동을 끌어들이어서 활성화하려는 관점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에 이미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 비행

등) 부정적인 활동이 많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어 부정적 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20년 전 브라이언트 파크의 사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단,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넣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CASE STUDY: Corning, NY

40년 전 신참 전문가로서 처음 일했던 사례

- 당시 코닝시의 중심상권은 20%에 달하는 높은 공실률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었고, 주민들의 자존감, 자부심도 매우 낮았음
-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여성 2명이 낡은 건물들이 지역의 자산이라는 아이디어 제시
- 역사건물의 보존과 복원에 대한 물리적, 시각적, 경관적인 관심에서 시작하여 역사보존 전문가로 현장에 투입됨(고용인들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청/지원)

커뮤니티의 본질에서 시작하라!

- 모든 지역사회에는 자신만의 역사가 있음
- 면밀한 관찰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처음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엔 이러한 경험이 꼭 값어치를 하게 됨
- 어느 지역엘 가나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100개쯤은 있게 마련인데, 이들을 인지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시키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 이들 스스로가 촉매가 되도록 할 것
- Educate and Communicate: 지역 신문 등 다양한 매체 활용

LQC는 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

- 정부 예산을 들여 보도, 가로수, 연석 등을 다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만, 값비싼 비용에 비해 정말 필요한지, 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자문할 필요가 있음
- 코닝에서는 간판이 너무 크다는 문제의식 -> 상인들이 스스로 줄이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 점포당 3~4천달러씩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이틀간 12개의 간판을 제거
- 건물 외장이나 형태가 예쁘면 물론 좋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는 않음
- 12ft x 12ft의 입면(3.6m x 3.6m): 이 작은 정사각형 안에서 모든 활동이 일어남
-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기대하는지에 착안하여 다양한 시도(Good->Better Idea)
- 가게 입면: 재질이나 차양 등 세부 요소들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비싸지 않음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라!

- 지역단체가 주선하여 할로윈데이를 위한 호박조각이벤트 개최(각자 건물/사무실 안에서 하던 것을 길에서)
- 오래된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지역상인과 소방서의 협조)
- 크리스마스 전까지 매주 토요일에 퍼레이드 -> 1시간 행사를 위해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열정을 들였는데, 주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집으로 가버림
- 한 번만 더, 이번엔 주변 상점들의 영업시간을 같이 늘리는 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한 것이 40년째 성공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지역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날이 됨
- 퍼레이드 준비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지역 교회의 성가대, 고등학교 학예회의 연극 등 기존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음
- 첫 시도부터 성공하지 않더라도, 피드백 과정을 통해 2번째 3번째 시도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함
- 아이디어를 완전히 버리거나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가진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뭔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함

Doing a Lot, with Very Little

- 적은 자원으로 많은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이용가능한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
- ex. 200주년 기념 현수막: 천만사서 지역 가게가 직접 재봉, 소방서에서 설치 협조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하라!

- 학교와 협력하여 아이들의 소풍을 교외가 아닌 시내로 와서 동네거리 그리기 체험
-> 이때 10살짜리 아이들이 50살이 된 지금도 Market St.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짐
- 40년째 멈춰서있는 시계탑 : 황폐하고 쇠락한 도시임을 상징 -> 이것부터 바꾸자!
수리 및 운영비용을 누군가 한방에 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모금/학부모+어른들의 관심 유도, 개장 행사도 선생님이나 정부 보다는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개최
- TED Marks라는 가게를 길 건너편으로 이전할 때, 이삿짐차를 안부르고 주민들을 불러 손으로 물건을 옮겨, 이사비용은 지역 도서관에 기부
- 이동식 화분을 사면 하나에 \$600 정도 들지만, 직접 만들면? 비용도 절감하고 지역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
- 시계탑 주변도로를 보행공간화 하는 사업: 30만 달러 견적 -> 벽돌 기증 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십시일반으로 마련, 벽돌에 가족이름을 새겨줌

4) 장소의 건축: 설계과정 뒤집어보기 / Alan Hantman

- 일시: 11.8.(목) 11:00~12:00
 - 강사소개
 - Alan Hantman, FAIA, 10th Architect of the US Capitol
 - 10년간 록펠러센터의 건축-재건-보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건축가로, 설계자와 관리자의 역할을 넘나들며 다양한 경험을 쌓음
 - 주로 커뮤니티보다는 민간 소유주, 개발자, 공공기관 등 의사결정과 관리 권한을 가진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역할을 많이 해옴
 - 강의내용
 - ‘장소의 건축’의 개념과 원칙, 실현 조건
 - 건축에 ‘장소’와 ‘시간’의 차원을 더해야하는 이유
 -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장소기반의 설계과정의 특성
 - 기업과 기관의 보수적인 관료주의에 맞서, 대형 건물들이 또 하나의 공공공간으로서 사람들의 활동과 요구를 수용하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해가는 과정을 설명
-

○ ‘장소의 건축’의 개념

- 장소의 건축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
- 형태와 외관만을 중시하는 ‘우상적인 건축(iconic architecture)’과 달리 장소의 문화, 정체성, 역사, 이용자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함
- 3차원의 건물에 사람(4번째 차원)과 시간의 흐름(5번째 차원)을 더해야 장소가 완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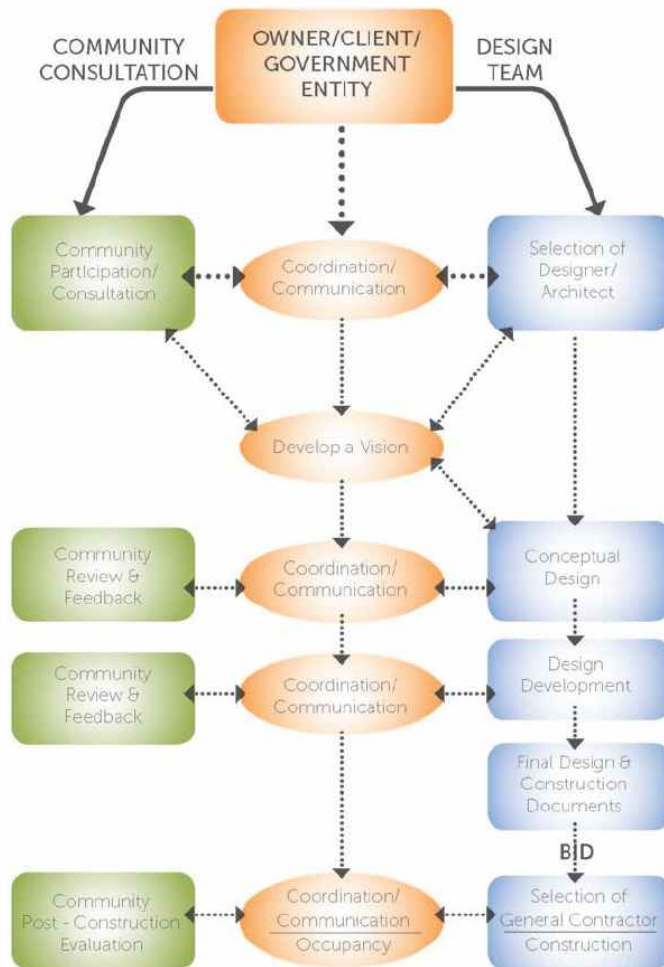
○ ‘장소의 건축’의 핵심 요소

- 활성화된 저층부 용도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 활성화된 용도와 유연한 대지설계 (지역사회를 끌어들이는)
- 복합 용도의 임대 (정규 업무시간 이후에도 열려있도록)
- 명확하게 표시된 입구
- 휴먼스케일의 입면

○ ‘장소의 건축’을 위한 과정과 조건

- 소유자/의뢰인 또는 정부기관의 역할 : ‘갑’의 중요성 =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각 부분의 설계가 일관성을 갖도록 통제함.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들의 동의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함.

IDEALIZED FLOW CHART FOR PLACE- BASED DESIGN



장소 기반의 설계를 위한
이상적인 업무흐름도

추상적으로 유형화하기는
했지만, '장소', '공간'의
다양성만큼이나 장소 관리의
형식이나 절차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소유/관리 주체가 복수일 경우 공공과 투자자, 개발자 간 공동 협약(Collaboration Agreement)을 맺는 등, 가치와 전망, 판단과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내-외부 공용공간의 프로그램 활성화: 건물/시설 자체의 목적이나 의도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 주변의 장소적 맥락에 부합하도록 외부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함
- 지역사회를 가능한 초기부터 참여시킬 것: 디자인을 먼저 하고 주민들을 불러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개념설계 단계부터 함께 하여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함
- 사실 각 장소에 적합한 디자인의 개념과 방향을 잡는 것은, 외부에서 온 전문가로서 지역적 특성과 맥락을 잘 모르는 디자이너가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일 -> 경우에 따라 '주민' 영역 주도로 개념 설계가 이루어질 때도 있음
- 건축가/설계자의 동의: 디자이너를 선정할 때 디자인 역량만큼이나 공동체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추었는지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됨(이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소통에 적합한 상호작용(interface) 체계를 갖추었는지 등)

- 계약서 상에 커뮤니티에 대한 대응 의무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설계과정에서 커뮤니티와 소유주/개발자, 설계팀과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
- ‘건설적인 주민조직’의 역할: 생산적인 논의,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한 의지와 역량
- 초기부터 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하다보면 후반부에는 지칠 수도 있음. 신뢰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온라인 매체 등 기술적인 해법을 도입하는 등,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절차, 기술적 해법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함
- 성공적인 사례를 축하/인정해주는 시상 등의 제도가 필요

○ US GSA, "Achieving Great Federal Public Spaces"

- 연방정부 소유 시설의 일선 관리자를 위한 안내서
- 이용자와 장소 관점에서 무엇을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PPS를 고용하여 매뉴얼을 만들었으나, 이후 실제 업무 현장에 대한 보급이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George Mason Univ.

- 사람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 없이 나온 초기 설계안: 행정관과 대강당, 법대 건물 사이의 중앙광장(Central Plaza)에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는 평범한 안, 자연스러운 접근을 막는 ADA 경사로, 친근함과는 거리가 먼 위압적인 디자인, 특별한 볼일 없이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계단 등의 문제가 지적됨
- 군(County) 정부에 의해 프로젝트 중간에 투입 -> Public Workshop을 통해 4개의 목표 도출 -> 지역사회의 장소감과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방향과 내용을 수정
-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소통과 연결을 증진하기 위한 원칙과 전략 수립
(Principles for Linking Town and Gown)
- 공공공간에서 할 수 있는/하고 싶은 다양한 활동을 조용한 것부터 무대를 활용하는 공연, 전시-축제 등 특별한 행사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여기에 필요한 어메니티 시설을 구체화(텐트, 이동가능한 테이블과 의자, 전기공급, 무선인터넷, 가설무대 등)
-> 장소의 활성화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배치/제공함
- 좋은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된 목표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이 사례에 참여했던 건축가는 베트남전 기념관을 설계했던 유능한 인물로 좋은 장소를 만들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기능적인 측면만을 요구한 다른 사례에서는 의미 없는 조형물만 덩그러니 놓인 쓸렁한 공간을 만들기도 함
- 램프의 위치와 형태를 변경하여 접근성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
- 계절적인 대응 전략: 여름과 겨울,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시설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등

○ Rockefeller Center의 Channel Garden

-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장소들이 필요하다.
- 사유지 내 도로를 공공에 개방하는 것은, 원래 건축주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내용
- Channel Garden은 지하 선크가든에 위치한 상업가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이어주는 연결 가로로 설계됨
- 원래 건축주에게서 사람들이 화단에 못 앉게 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는데, 가시철조망을 설치하는 대신 오히려 벤치를 놓아주라고 조언 -> 이 자체가 매력적인 공간이 됨
-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은행지점들이 차지하고 있던 저층부를 활기 넘치는 쇼윈도를 가진 다양한 상점들로 바꾸고, 블록 가장자리에 NBC Studio를 유치 -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것 뿐 아니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내-외부공간의 시각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효과
- 저층부를 차지하던 주차장에는 크리스티 경매장을 유치
- Channel Garden 중앙의 화단은 매 시즌마다 독특한 컨셉으로 꾸며지는데, 이 비용은 주로 홍보효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서 나옴. 연간 1회, 민간 판매자들이 운영하는 가든 쇼가 열리기도 하며, 대형 스크린에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임시 자동차 극장이 열리기도 함
- 프로메테우스 상이 있는 선크가든의 계절적 활용 : 여름에는 다이닝, 겨울에는 스케이트 링크로, 주변 보행로와 시각적 상호작용 -> 원래의 설계/공간에서 한층 더 진화한 용도
- 건물 내 외장재에서부터 메인 로비의 벽화, 캐노피 위의 문양, 안내표지판에서 가로수 덮개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요소들이 고급스러운 재질과 마감, 조화로운 톤을 유지하여 공간의 품격을 은은하게 드러냄
- 록펠러센터는 민간에 의한 상업구역개선(Private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의 원형이 된 사례로, 사유지 내의 공공공간 활성화로 인하여 주변 임대료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보안과 시설관리, 위생 및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부적절한 이용/이용자에 대한 우려: 이들을 쫓아낼 수 있나?
-> 사유지 내의 규칙은 센터가 스스로 정할 수 있음. 단,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US Capitol

- 국회의사당 및 주변 공공공간 개선:
- Olmstead가 설치한 정원과 역사적인 건물들, 전망을 보존하면서 다양한 시민 행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과 방문자센터, 기념품점 등 새로운 기능+어메니티를 삽입하고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편

- 각 구역마다 다른 특성과 기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정부관청건물이 좋은 이웃으로 여겨지려면, 개방성과 보안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
- 도로에서 지나치게 멀리 셋백되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해결
- 전면에 주차장을 없애고 적절한 입구성을 부여
- 방문객 진입동선을 지하화, 엘리베이터로 연결하고 천창 설치 (하루 5,000명 이상 방문)
지하공간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잘 되고 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음
- 의뢰인의 특수성: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부기관, 민간단체의 견제, 언론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사업
- 사업에 6~10년정도 소요되는 중간에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모두를 다시 설득해야 하는 상황 -> 든든한 지원자/대표의 역할 덕분에 각 의원들을 직접 설득하지 않아도 되었음

○ San Juan, Puerto Rico

- 의사당과 국립공원 산책로를 연결하는 공공공간
- 의원들과 공원관리기관, 지역사회의 참여
- 동상, 분수 등의 패널에 이름을 새기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사소한 행위가,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됨
- 이들의 성취동기와 노고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적극 허용/활용하는 것이 좋음

○ San Antonio, TX

- 주립 유적지(요새)와 관광지, 박물관, 상점 등이 밀집한 역사지구 사이를 관통하는 도로와 요새 앞의 광장(Plaza)을 통합 개선하는 프로젝트
- 토착주민들(인디언)에게는 묘지가 있는 성스러운 장소 -> 원주민과 관광객, 시 정부의 서로 다른 입장과 요구, 기대를 절충시키는 한편, Plaza 안의 각 구역마다 서로 다른 의미와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음
- 지나치게 넓은 도로 폭을 줄여 보행과 접근을 편리하게 하였음

○ 결론 및 요약

- 건축가/설계자의 역할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과 요구를 해석하여, 공간적 디자인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일(≒번역)
-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정치적인 의지와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디자이너와 주민들이 가능한 초기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에 따라 계획안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 번에 하나씩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함

5) 도시공간을 바꾸는 가볍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 / Eldon Scott

• 일시: 11.9.(금) 09:00~10:30

• 강사소개

- Eldon Scott, 시장 활성화에 경험과 역량을 갖춘 컨설턴트/활동가로 80년대 초부터 40년 가까이 활동해옴. 유니온 스퀘어에서 홀리데이 마켓을 처음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London의 Camden Market, Chelsea Market, Gabriel's Wharf, Spitalfields Market 등 많은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음

• 강의내용

- 현장에서 LQC의 개념과 전략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 진정성 있는, 복합용도의 공공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실제 성공사례에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전달
-

○ London의 사례들

- 런던에서 최초로 오가닉 마켓을 시작했을 때, 공식 명칭으로 Bio Marche라는 불어를 사용하였다. '유러피안 마켓'이라는 홍보문구가 통하던 시절이었다. 지금 세대는 60년대와 70년대 감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국적인 것에 대한 선망보다는 지역성(local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하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다.
- Camden Lock: 기존의 로큰롤 클럽, 문화예술행사, 다양한 수공예품점들 유치
- Gabriel's Wharf: 콘크리트 창고였던 곳에 세트디자인업체를 섭외하여 벽돌무늬로 채색하고 가게 입면을 공들여 제작하였음
- Spitalfields Market: 경제 불황기에 시작. 적은 돈으로, 기존의 방치된 넓은 공간 활용

○ New York의 사례들

- Union Square: 오늘부터 Holiday Market을 위한 공사에 들어가 다음 주에 개장 예정.
 - 수공예품 위주의 판매자들, 품질과 매출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마켓으로 손꼽힘
 - 임대료 수준은 크기와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장 작은 임대공간이 \$6,000부터 시작함. 정확한 매출은 집계되지 않으나, 매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판매자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최소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함
- Farmer's Market = "Forum for the Urban Farmers", 도농교류의 장,
- Madison Square: Flat Iron 건물 근처 원래 도로였던 곳을 활용하여 5월과 9월에 개장, 주로 음식 종류를 판매, 실내 대형 푸드 코트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DEKALB Market in Brooklyn: 대형 쇼핑센터(Century 21)이 들어오기 전까지 비어있

는 땅을 활용. 당초 3~4년정도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허가 및 준비기간에 1년 이상 소요되었고 실제 운영한 기간은 1년 반 정도 된다. 인접한 공간에 다양한 용도들이 입지하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Triangulation의 전략을 적용하였다.

○ 왜 벼룩시장인가?

- 월마트와 같은 Big Box Uses가 도시 공간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벼룩시장은 도시공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이벤트의 역할을 수행함
- 경제적으로, 소규모/신생업체가 많은 유동인구와 접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유일한 수단 (변화가일수록 기존 건물/실내공간의 임대료 부담 등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벼룩시장은 거대한 틈새시장이자, 새로운 기회를 여는 블루오션

○ 벼룩시장의 성공요인은?

- (상품/서비스의)퀄리티는 입지에 비례한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일수록 많은 신청자들이 모여들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까다롭게 선택할 수 있음→ 마켓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동했던 지역은 대부분 일일 유동인구가 최소 2,000명에서 최대 40,000명에 이른다. 이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중 실제로 그 공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을 경우, 마켓 스스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 가치판단의 문제?

- (질문) 이전의 ‘나쁜’ 용도를, ‘긍정적인’ 용도로 바꾸었다는 표현에는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는데, 인위적인 기획을 통해 장소를 변화시키려다 보면(Curating Place) 본의 아니게 기존의 용도나 이용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평가절하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또한 마켓의 활성화로 인해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 구성원들이 대체되는 Gentrification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좋은 용도와 나쁜 용도를 나누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라고 본다.
- 사실 우리의 일은 새로운 공간적 기회를 창출하고 (임대를 통해)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주는 것. 사회적인 가치보다는 주로 경제적인 가능성을 보고 일을 함.
-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의 관리 권한을 가진 공공/민간주체와의 협약/위임이 필요한데,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이 성공하면 세입도 늘어나게 되고, 기존 구성원의 변화가 있더라도 장소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호의적인 편임

○ 형평성의 문제: 기존 업체의 위기감이나 반발은?

- (질문) 저렴한 노점의 유입에 대하여, 주변 건물이 실내공간을 임대하여 운영되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나 위기감은 없는가?
- 때때로 기존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극복에 왕도는 없고, 매니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명 한명을 만나서 설득한다.
- 침체된 상업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관점에서 환영받는 경우도 있다.

○ 공공장소의 상업화/사유화에 관한 논란

- (질문) 공원, 광장 등 도시의 공공공간이나 빈 공간을 점유하여 마켓을 개최하고, 여기에 서 민간 운영주체가 수익을 거둔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
- 시장은 매우 오래된 공공장소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인류의 문명 자체가 시장에 기원하고 있음→ 현대 도시에서도 시장은 사람들과 행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여기에 공공장소로서 많은 가능성과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음
- 우리는 개발자로서 기존 장소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기획,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시장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공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주로 비정기적이고, 겨울철 등에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수익금 내에서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다른 용도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공간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특정 기능을 일부러 유치하기도 함

6) 성공적인 시장(market)을 만드는 비결 / Kelly Verel

- 일시: 11.9.(금) 13:30~15:00
 - 강사소개
 - Kelly Verel : PPS의 Senior Associate로 공공시장에 관련 프로젝트를 맡고 있음
 - PPS는 지난 25년간 미국과 캐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Kelly Verel은 2006년부터 40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해왔음
 - 강의내용
 - 성공적인 시장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
 - 미국에서 최근 개장한 사례들을 통해 전략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
-

○ 공공시장(Public Market)의 조건

-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공간에서 개최되며, 지역에서 소유/운영하는 업체에 기여함

○ 공공시장의 위기

- 미국 전역에서, 각 도시마다 유서 깊은 도심부에 위치하던 전통적/전형적인 시장 건물들은 점차 사라져왔으며, 그 빈자리에는 호텔과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서왔음
- 각 지역별로 Farmers' Market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시내의 시장 - 주변환경과 맥락,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
- 기존의 유희공간의 활용방안으로서 시장을 유치/개최하는 문제 + 기존 시장들의 회복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 공공시장의 이점

- 도심과 동네에 새로운 기운을 가져온다.
- 다양한 사람들을 모은다.
- 활력 있는 공공공간을 만든다.
-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공중보건을 증진한다.
-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연결한다.
 - > 농업인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

○ 여러 도시의 사례들

- Brooklyn Flea Market: 시장의 구성요소/점포들을 기능 및 종류별로 분화하여 여러 지점에 짬짬 개최되는(pop-up)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음
- 볼티모어의 경우 시내에 운 좋게도 6개의 시장들이 남아있음 -> 최근 공공시장에 대한 국제학술대회 개최(8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Public Market)
- West Side Market, Cleveland, OH: 주 3~4회 개최하던 시장을 영구/상설화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실내공간을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재개장함. 특히 지하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음
- Eastern Market, Detroit, MI: 8에이커 규모의 시장, 도매만 취급하다 주 2회 일반소매를 겸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찾았음
- Detroit: Food Desert(신선한 농산물/먹거리를 접할 수 없는 대도시)를 바꾸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동식 시장, 근린 농업인 직거래 장터 네트워크, 동네 모퉁이 가게의 혁신, 식품 현지가공 및 시범 조리시설(Demo-Kitchen)

○ 10가지 성공요인

- 상인들: 가장 중요한 요인. 개별 점포의 업종과 상품의 질이 곧 시장 전체의 경쟁력이며, 상인들 각자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함. 손님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물품진열만 해도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3초 만에 확실히 PR할 수 있어야 함. 개별 점포/상품의 특성이 어떻게 지역성과 연결되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인.
- 입지: 전통적으로 시장은 도심부, 그중에서도 도시가 발달하는 중심축을 따라 형성됨. 시야와 접근성 확보, 원활한 흐름과 이동, 기억할만한 장소와 전환의 기회를 제공주어야 함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에서 접촉의 불꽃(Spark of Contact)이 튀는 특별한 순간)
- 적당한 혼합: 다양성과 경쟁 촉진, 독점이나 담합(같은 물품, 3곳 이상)을 지양
- 사명(Mission): 명확한 목적과 동기부여, 지역사회에 기여, 새로운 기회 창출
 - * 1907년 시애틀의 터미널 마켓은 시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상업적, 사회적인 효과를 인지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시장의 운영 목표로 삼음
- 공공공간: 입구의 장소성, 휴식공간, 비공식적인 편안함과 가변성, 과잉 설계를 지양
- 연결: 공간적 연결 + 지역사회 및 구성원과의 관계, 협력과 선순환, 사회공헌
- 경제: 공공투자의 정당성, 수익의 지역 환원
- 홍보: 판촉행사, 축제, 시음-시식회, 지역신문이나 온라인 매체, SNS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
- 가치: 지역의 자치 및 운영 방향, 장기적인 전망과 부합해야 함
- 관리: 민간-공공, 영리-비영리의 구분을 떠나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

○ Discovery Green Flea, Houston, TX

- 2011년 9월부터 매월 셋째주 토요일 개장
- 총 80개의 참여점포 중, 매회 평균 3-40개가 열리며 2500명이 방문
- 민간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대규모 모금 활동 등을 주최하기에도 자유로움
- 원래 Farmers' Market으로 운영되었으나, 주변에 주로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하여 신선한 식재료에 대한 수요가 낮았음 → 빈티지 상품과 골동품, 수공예품 위주의 업종으로 전환하고, 작은 식료품점도 일부 운영
- 지역 특성상 여름철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야간에 개장하며 야반도주(Flea by Night)라는 이름을 붙임
- 참여 점포들에게 일정 요율의 임대료(부스 당 75\$)를 받으며, 주최 측에서는 이 수익금을 공간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고 현장의 치안유지 및 관리를 위한 인력, 전기, 상인 전용 주차공간, 간이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을 제공하며 음악을 연주할 밴드를 섭외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

○ NewBo City Market, Cedar Rapids, IA

- 2008년 지역에 큰 수해가 일어났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반시설 등 물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음
- 시 정부에서는 시장 개장을 수해로 침체된 경제와 상처 입은 지역의 민심을 치유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기회로 여겼음
- NewBo City Market은 네 가지 사명을 가짐: 시장의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구심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증진하고, 고용 및 자영업의 기회를 창출하며, 홍수로 타격입은 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고 상행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
- 시와 군, 주정부의 지원 및 용자와 기부, 모금활동을 통해 425만 달러 규모의 시설예산을 마련하였으며, 연간 운영 비용은 24만8천 달러 정도 소요 예산
- Anchor Tenants라고 불리는 21개의 점포 외에도, 공연,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가변적 공간을 활용하여 28개의 임시점포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으며, 외부공간에는 계절점포를 156개까지 수용 가능
- 어린이를 위한 놀이공간과 '배움의 정원'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자리잡음

7) 공공공간의 관리: 제한된 자원과 제약 속에서 일하기 / Andy Manshel

• 일시: 11.9.(금) 15:30~17:00

• 강사소개

- Andrew M. Manshel, 변호사 출신으로 공공공간 관리조직의 감독-자문 분야의 전문가
- Norman이 Main Street의 할아버지라면, Andy는 Bryant Park의 어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림
- 1977년에 뉴욕시 최초의 벼룩시장을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퀸즈 자메이카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개발회사(Greater Jamaica Development Corporation)의 부회장직과 자메이카 자본회사(Jamaica Capital Corporation)의 회장직을 맡고 있음

• 강의내용

-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배짱이 필요함
 - 실제 경험에서 축적된 잠언들을 제시하며, 앞선 강의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

○ Jamaica, Queens

- Jamaica(퀸즈 지역의 오래된 흑인거주지)로, TOD 개발원리가 적용되었으며, 계획 당시 부터 놀이터와 공공공간이 부족했음(인종차별의 영향)
- King Park Lawn: 지역의 중요한 공공공간. 만연한 '깨진 유리창 효과'를 극복하고, 부정적 활동들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제였음

○ 깨진 유리창 효과 : 공공공간 관리의 중요성

- 쓰레기가 있거나, 잔디가 아무렇게나 자란 채 방치되어 있으면 나쁜 활동을 불러옴
- 멈춘 시계 또한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의미함 -> 항상 작동하도록 유지
- 잔디밭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쓰레기 줍기, 물주기, 잔디깎기 등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
-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는 원래 모래 토양이 물을 너무 자주 쥐야하고, 잔디가 항상 젖어있어 앓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음 -> 토양을 유기토(Organic Soil)로 바꾸는 데에만 2년 이상이 걸렸음

○ 원예의 힘

- 잘 가꾸어진 꽃은 누군가 그 공간을 항상 돌보고 있다는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많은 의미를 전달함
- 다채로운 식물들을 활용하면 물리적 시설물(Hardscape)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간을 활기차기 만들 수 있으며, 반사회적 행위나 불안감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과

- 수공간의 경우 녹화보다는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음(브라이언트파크에서는 분수대의 유지관리에 연간 만5천에서 2만달러 정도 소요)

○ 안전(Security)

- 길 위의 시선(eyes on the street): 시각적인 단서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통제
- 브라이언트 파크 관리인들에게 보통 7-80\$/h -> 120\$/h 지급, 1.5배 높은 임금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냄 -> 만족과 자부심은 주인의식과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짐
- 잘 교육된, 친절한 사람들이 항상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 이용자에게도 편안함과 만족감을 줌
- 공원 둘레의 울타리와 제한된 출입구, 계단 때문에 공원 안에서 가로에서 분리된 느낌을 받음 -> 투명성과 개방성, 접근성과 연결을 개선
- 물리적인 차단이나 시각적 차폐 없이도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유도할 수 있음. 때로는 잔디밭 경계에 낚시줄을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
- 시민의식이나 상식, 자율과 같은 사회적 규범은 강제할 수 없음
- 이동식 의자의 경우, 사람들이 공간 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 ->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음

○ 지역사회 참여 ≠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

- 브라이언트 파크에서는 공원보존회(Conservancy) 자체 예산으로 디자이너와 이벤트 플래너를 고용하고 있음. 이정도 인력을 운용한다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며, 웬만한 문제는 외부 자문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 한 장소로서 연간 2,000개 이상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 성공비결은 '승낙하는 것'
-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제안들을 경청하고, 별 무리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편 -> 공공공간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 뿐 아니라 이벤트를 기획, 제공하는 과정까지도 지역사회에 열려 있으며, 이로써 이벤트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야외 음악공연의 장르 : 힙합->재즈->캐리비안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최종 낙점
- 사람들의 인식과 현실의 차이 : 설문에서는 재즈가 좋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음 / 대답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
- 공연 등 이벤트가 너무 과하면 주변에 오히려 피해를 준다. -> 소음계로 일정 거리에서 측정, 일정 dB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디자인보다 관리가 중요하다.

- 작은 차이가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을 만든다.
- 나쁜 디자인은 관리를 통해 극복할 수 있지만,
좋은 디자인도 잘 관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

○ 안 된다는 말에 굴하지 말라. (관습과 선입견)

- 차라리 보험회사를 불러 견적을 받는 편이 낫다. 잠재적인 위험을 다루는 전문가들이다.
심각한 반대의 이유도,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 경우도 많다.
- 변호사 출신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는 싸우는 일에 익숙
- 관습적인 지혜는 늘 틀리기 마련이다.
-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 위험부담을 지고 물을 깨라.
- 작은 실패를 감수하라.
- 유일한 장소는 없다. 다른 장소에서 아이디어를 훔쳐라.
- 굴렁쇠 효과 : 작은 성공이 더 많은 성공을 가져온다.

○ 자원을 활용하는 지렛대 효과

-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 대신 값을 내줄 사람을 찾아라.
- HBO에서 공공공간에서의 영화상영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예
- 개인 기업가와 협력하여 택시 허브 조성, 2~3만달러 투자하는 대신 광고를 통해 수익 창출, 성공하고 나니까 특혜 시비가 나오지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을 땐 아무도 뛰어들려고 하지 않았음
- 낡은 뉴스가판대 교체할 자금 부족 -> 광고회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수익창출구조를 만들어냄 -> 초기에 시설투입비를 제외하고도 25%정도(약 8만달러) 수익이 남음
- 브라이언트 파크 안의 식당도 초기에는 적자를 면치 못해 보조금을 지원해서 유지했지만, 지금은 장소의 성공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
- 처음 시작할 때의 위험부담은 누구나 꺼리지만, 일단 성공하고 나면 합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
- 합법화 및 제도화 방안은 작은 실험과 도전을 통해 성공을 거둔 후에 찾아낼 수도 있음

2) Rockefeller Center



록펠러 센터의 Channel Garden.

양쪽 건물 사이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면 유명한 선크가든과 록펠러센터 중앙의 본 건물로 이어진다.

경사로 양쪽에는 고급스런 상점들과 투명한 쇼윈도가 늘어서 있어, 화려하고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다.



Channel Garden 중앙의 화단.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NBC News에서 민주광장 (Democracy Plaza) 이라는 컨셉의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록펠러 센터를 대표하는
중앙의 선크가든과,
겨울철에 개장하는
스케이트장.

선크가든의 돌레를 따라
쭈뼌히 설치된 깃대에는
만국기가 펄럭이며 공간에
동적인 활기를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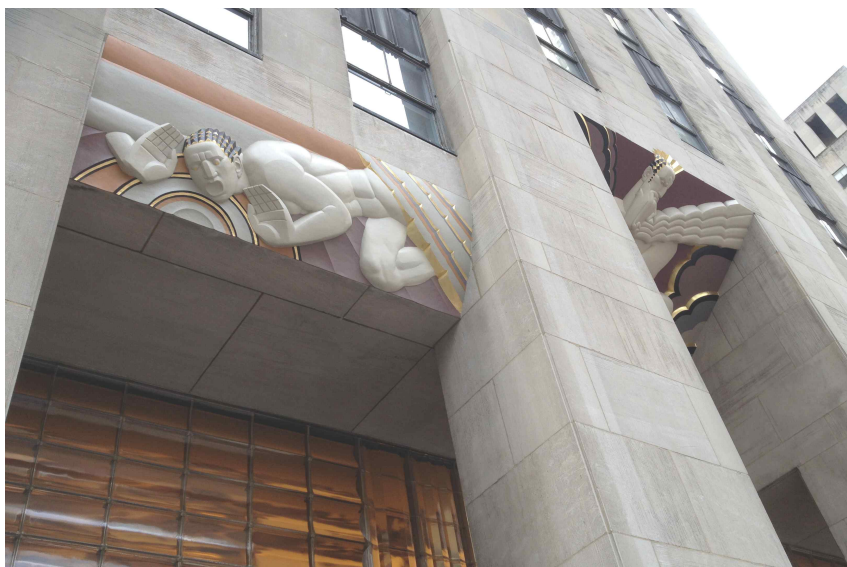
록펠러 센터의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건축가 Alan Hantman이
참가자들에게 선크가든과
스케이트장, 외부공간의
공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록펠러 센터의 건물들은 직선적인 요소가 강조된 형태에, 블록 전체에 같은 외장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칫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다.

건물의 출입구나 메인 로비 위쪽을 독특한 조각으로 장식하여, 시각적인 디테일과 감상의 재미를 더해준다.

똑같은 모양의 조각은 하나도 없다.



Alan의 꼼꼼한 설명은 건물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메인 건물의 로비를 장식하는 웅장한 벽화(상)와 꼼꼼하게 마감된 바닥면의 디테일(중).

재질과 마감의 퀄리티는 내부는 물론 건물 주변의 보도 등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하).

이러한 작은 차이가 주변의 다른 블록과 차별화되는 록펠러센터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토요일 야간에 다시 찾은
Channel Garden의 모습.

가설구조물은 철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화단에
걸터앉아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



야간에도 운영하는
스케이트장 덕분에
한겨울 저녁시간대에도
이 주변은 많은 사람들로
복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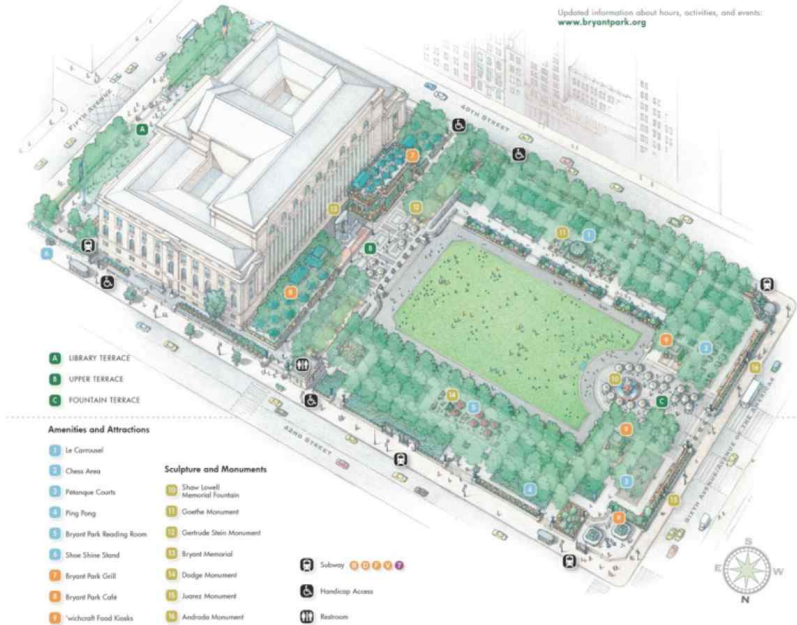
스케이트장 주변으로
구경꾼이 모여 인파를
이루고 있다.

3) Bryant Park



브라이언파크의 위치도와 안내도, 외부 전경.

뉴욕 공공도서관과 접해있는 이 거대한 공원은 고층 건물이 가득 들어찬 도심에서 녹음과 넉넉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브라이언파크로 들어오는
초입 부분에는 작은
규모의 공원 안내 부스와
안내를 돕는 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공원의 주 출입구
양쪽에는 독특한 형태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어
입구의 성격을 강조하고
이용자들을 환영하는
친근한 인상을 준다.

키오스크에서는 공원을
방문하거나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료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간식거리를
판매한다.

그 주변으로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해두어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다.





공원 입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강연 내용을
설명하는 Norman Mintz.



근무 중인 공원
관리자에게도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공원과 자신의 임무,
역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공원 내에 설치된 부스에는 옷이나 장신구 그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소품들을 판매하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이러한 상점들은 공원에서 휴식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겨울철(대략적으로 12월에서 2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공원이 활기를 잃고 빈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역시 겨울철에만 운영하는 공원 내 스케이트장이다. 11월 현재는 개장 준비를 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원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에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들이 놓여 있다.

가벼운 재질과 심플한 디자인의 녹색의자는 William H. Whyte가 사용했던 것으로,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시작하여 뉴욕 시내의 다른 공원과 주요 공공공간으로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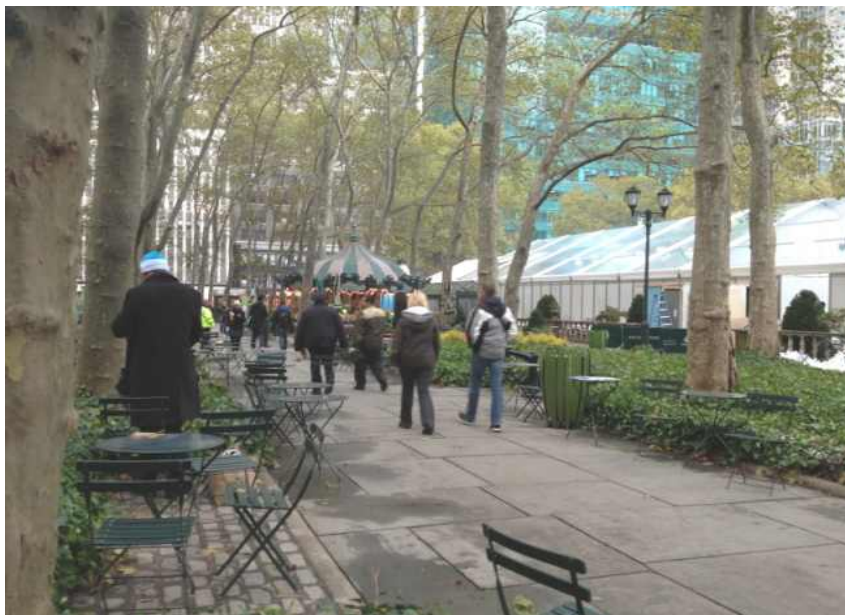
지금은 뉴욕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 공공공간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음료를 판매하는 부스 옆, 보행로나 상점 주변의 자투리공간에도 예외 없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도입 초기에는 의자를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분실, 도난될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 시설물이 낡거나 고장이 나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물량에 비해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원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드나드는 지점과 시간대가 제한되어 있고, 공원이 개방된 시간대에는 지켜보는 눈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브라이언트파크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야외 독서공간 (Reading Room)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 사진: PPS 제공



또 다른 인기 프로그램인 회전목마.

원래 Norman은 업무용 고층건물 위주의 주변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전목마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회전목마 설치 이후 공원은 인근 지역에서 평일 낮시간에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었고, 주말에는 더 먼 곳에서부터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끌어들었다.



Reading Room과 회전목마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어린이 독서공간'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의자와 테이블을 갖다놓았다.

기존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Triangulation의 대표적인 예이다.



공원 내에는 관리요원들이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며
치안을 유지한다.



공원 구석구석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식재와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공원의 한 귀퉁이에는
망가진 의자와 테이블,
청소시설물 등, 공원관리
및 보수에 사용되는 여러
자재들이 적재, 보관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주말 저녁시간대의 공원은
평일 낮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밝은
조명이 설치된 분수대나
상점 주변에 자리 잡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원래 뉴욕에서는 길거리나
야외 공공공간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드물게
생맥주를 비롯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공원 안에서는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관리,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뉴욕에는 수준 높은
식당과 주점이 많지만,
다소 허술한 이 공원의
간이매점에서는 실내
상업공간과는 또다른
운치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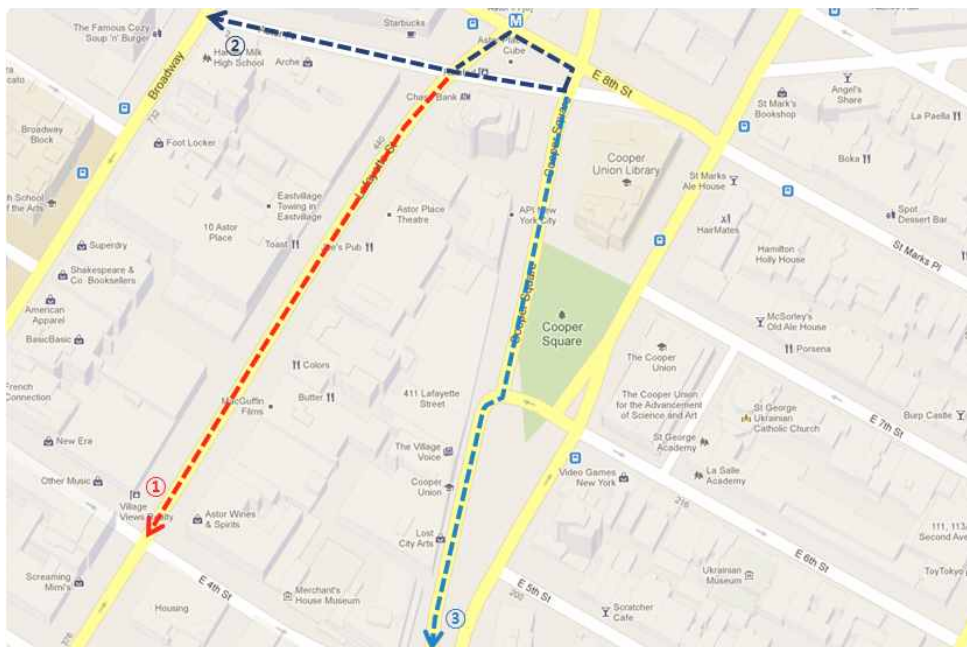


4. 장소평가 실습

- 일시: 11/8 (금) 10:30~12:30
- 장소: Astor place (지도상에 표시된 ①, ②, ③ 구역 주변)
- 목적
 - PPS Workshop Program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장소 만들기의 주요 개념과 관련 내용들을 실제 장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득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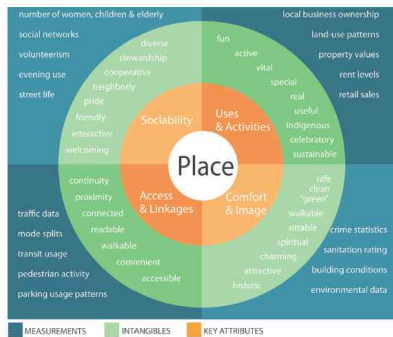
1) Place Game 개요

- Place Game은 PPS에서 실제 사업의 초기단계에 사용하는 장소만들기 도구로서, 지역사회의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상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장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참가자 간 문제인식과 전망,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원래 일반적인 커뮤니티 워크숍에서는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활동인데, 본 워크숍의 참가자들이 실습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PPS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Astor place를 대상으로 약식으로 간소화한 평가과정을 수행
- 전체 대상지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대한 평가 및 조사를 수행할 조를 나누어 배정한 뒤, 2~30분간 실제 장소와 이용자들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조원들이 의견을 교류하고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음



2) PPS "Place Game"

What Makes a Great Place?



PPS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creating and sustaining public places that build communities. We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programs in parks, plazas and central squares, buildings and civic architecture, transportation, and public markets. Since our founding in 1975, we have worked in over 2,500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helping people to grow their public spaces into vital community places.

PPS
PROJECT FOR
PUBLIC
SPACES
419 Lafayette Street
Seventh Floor
New York, NY 10003
212.620.5660
www.pps.org

SITE #: _____ Date: _____

Rate the Place:

COMFORT & IMAGE	POOR			GOOD
Overall attractiveness	1	2	3	4
Feeling of safety	1	2	3	4
Cleanliness/Quality of Maintenance	1	2	3	4
Comfort of places to sit	1	2	3	4

Comments/Notes:

ACCESS & LINKAGES	POOR			GOOD
Visibility from a distance	1	2	3	4
Ease in walking to the place	1	2	3	4
Transit access	1	2	3	4
Clarity of information/signage	1	2	3	4

Comments/Notes:

USES & ACTIVITIES	POOR			GOOD
Mix of stores/services	1	2	3	4
Frequency of community events/activities	1	2	3	4
Overall busy-ness of area	1	2	3	4
Economic vitality	1	2	3	4

Comments/Notes:

SOCIABILITY	POOR			GOOD
Number of people in groups	1	2	3	4
Evidence of volunteerism	1	2	3	4
Sense of pride and ownership	1	2	3	4
Presence of children and seniors	1	2	3	4

Comments/Notes:



Place Game

Place Performance Evaluation
A Tool for Initiating the Placemaking Process

©2011 Project for Public Spaces, Inc. The 'Placegame' cannot be used without formal, written permission from PPS. If permission is granted, full credit must be given to PPS on all written materials and in any verbal descriptions of the game.

Identify Opportunities

1. What do you like best about this place?
2. List things that you would do to improve this place that could be done right away and that wouldn't cost a lot:
3. What changes would you make in the long term that would have the biggest impact?
4. Ask someone who is in the "place" what they like about it and what they would do to improve it. Their answer:
5. What local partnerships or local talent can you identify that could help implement some of your proposed improvements? Please be as specific as possible.

PLACE GAME

"PLACE GAME"에서는 장소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이다.

평가항목은 각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편안함, 접근성과 연계성, 공간의 용도와 활용, 공간이 지니는 사회성의 4가지 부문에 대하여, 상징적인 특성들(Intangibles)과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측정요소(Measurables)를 고려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에는 각 평가항목과 요소에 대한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Astor Place의 전경. 교통 위주의 교차로로 보행공간이 분절되어 있고, 주변에 독특하고 의미 있는 장소자원들이 산재해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다.

* 출처: PPS 홈페이지
Hall of Shame.
http://www.pps.org/great_public_spaces/one?public_place_id=938#



Astor Place의 개선안(전, 후).
폐쇄적인 은행/콘도 건물의
저층부를 보행친화적인 용도로
활성화하였으며, 고립된 교통섬
주변의 보도와 횡단보도를
확장하고 차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여 공공공간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출처 :
<http://nycsr.org/new-york-streets/photo-gallery/>



교차로 중앙의 교통섬에 설치된
조형물은 Tony Rosenthal
이라는 작가의 'Alamo'라는
작품이다.

Astor Place의 장소 이미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Astor
Place Cube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하다.

뒤에 보이는 붉은 건물은 쿠퍼
유니언 대학 재단의 본관이다.



Alamo가 있는 교통섬을
반대편에서 바라본 모습.



Astor Place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역이름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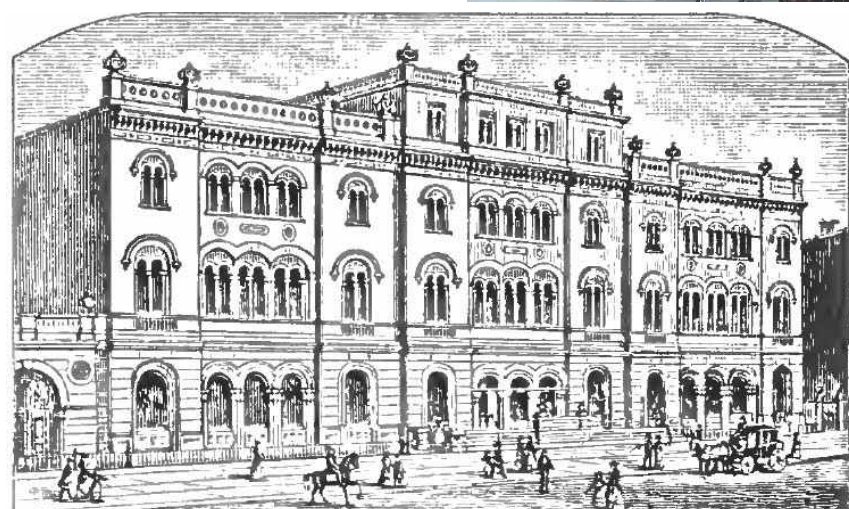
타일로 제작되어 고풍스러운
느낌을 준다.



(좌) 한때 뉴욕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John Jacob Astor의
초상 (Oil painting by Gilbert
Stuart, 1794, from
Wikipedia)

Astor Place라는 지명은 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주변 곳곳에
그와 관련된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다.

(우)Astor의 오페라 하우스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Clinton
Hall Mercantile Library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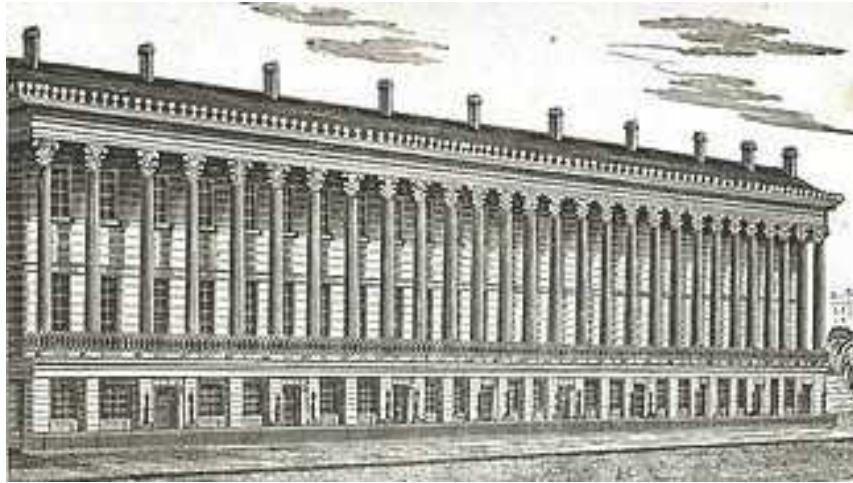


1층의 커피숍은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준공공공간
(3rd Place)의 역할을 한다.

(가운데, 아래) 예전에 도서관이
있던 건물에는 현재 Joseph
Papp Public Theatre가 들어서
있다.

Astor의 사후 공공에 기증된
Astor Library의 소장도서는
현재의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기틀이 되었다.





코린트식 열주량이 특징적인 La Grange Terrace. Colonnade Row라고도 불린다.

총 9채 중에서 지금은 4채만이 남아있으며, 1976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부동산 재벌이었던 Astor에 의해 소유, 건설된 건물로 1830년대에 지어졌다.

원래의 용도는 주거용으로 한때 Astor의 손자가 거주하기도 했으며, 지금은 Astor Place Theatre가 입주해있다.



각 조별로 실제 장소를 방문하여 PPS "Place Game"을 기준으로 장소를 평가하고 토론을 통해 취합된 내용들을 전체 워크숍 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정을 담은 모습이다.

LQC(가볍고 빠르고 저렴하게)의 관점에서 공공공간으로서의 활력을 개선하고 보행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단기-장기적인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Ⅲ. 출장성과 요약

1. ‘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사례 연구 관련

- 브로드웨이의 Green Light for Midtown 사례는 자동차 위주의 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매력적인 공공장소로 전환한 사례로서, 도시, 교통 및 공간환경 정책에서 인식과 우선순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 특히 혼잡하고 고밀한 대도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뉴욕의 한복판에서조차 이런 급진적인 혁신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보행친화도시의 구성을 표방한 서울을 비롯하여 현실적인 제약요인과 우려에 가로막혀 있는 다른 도시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또한 (Astor Place 개선안 등의 사례에서) 브로드웨이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던 전략과 기법들이 뉴욕 시내 곳곳으로 확장되려는 흐름을 읽을 수 있었음
- High Line은 산업시대의 유산에 새로운 용도와 활력을 부여하여 재탄생시킨 사례로서 오래된 장소의 흔적과 기억을 보존하는 것의 가치와 더불어, 도시공간과 식생, 사람과 장소의 공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임
- 최근 국내에서도 철도 폐선부지를 비롯, 여러 유형의 산업시설의 재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라인은 그 자체가 가지는 설계와 장소의 질은 물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및 파급효과 측면에서 훌륭한 벤치마킹의 대상임
- 이번 답사를 통해 간접 자료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례지의 세부적인 조성 현황과 장소적 맥락, 이용행태적인 특성, 주변 여건 및 연결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음
- 대상지를 총체적인 장소로서 직접 경험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사례 연구의 깊이 및 정확성을 한층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장소만들기 교육 관련

- 물리적 디자인보다 사람, 활동, 과정을 중시하는 장소만들기의 접근 방식은 보행환경의 개선에도 매우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함
- 보행환경의 개선 또한 궁극적으로는 보도의 물리적 확장이나 연결, 보행자 교통사고의 감소와 같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지표들을 넘어 도시 및 지역의 다양한 장소와 활동,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나아가 보행환경 그 자체가 활기 있고 매력적이며 지속가능한 하나의 장소로서 원활히 작동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결국 장소만들기의 문제로 귀결됨
- 본 교육과정은 장소만들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 온 PPS에서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음
- 강연자 개개인의 경력이나 강연의 내용 이전에, 모두에게 공통으로 깔려있는 사람과 장소에 대한 애착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인 태도가 무엇보다 인상 깊었음
- 장소만들기의 방법론과 도구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구조화되면서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갖추어왔으며, 새로운 도전과 실천을 통해 아직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음
- 교육과정 자체가 기초이론이나 개념 등, 원론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전략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향후 사례 및 정책연구에서 추진 과정 및 실행체계에 대한 분석에 응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관점들을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었음
-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Times Square Alliance, 34th Partnership 등) 연구대상 사례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들을 알게 된 것 또한 중요한 수확이었음
- 또한 배경과 가치관, 관심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참가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각과 지평, 경험의 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음